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A Textlinguistic Study on the New Year's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김 순 옥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A Textlinguistic Study on the New Year's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지도교수 신 중 진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순 욱

이 논문을 김순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2월

심 사 위 원 장 : 조성문



심 사 위 원 : 전 은 진



심 사 위 원 : 신 종 신



한양대학교 대학원

차 례

국문요지	v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의의	1
1.2. 선행 연구	4
1.3. 연구 대상 및 방법	7
1.4. 논의의 구성	9
2. 대통령 신년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	10
2.1. 서언	10
2.2.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과 특징	11
2.3. 신년사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	15
2.3.1. 텍스트와 텍스트 구조	15
2.3.2. 텍스트 기능	18
2.3.3. 텍스트 유형	19
2.4. 요약	22
3.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구조 분석	24
3.1. 서언	24
3.2. 신년사 구조의 모형	25
3.2.1. 신년사의 전체 구조	25
3.2.2. 신년사의 전개 구조	30
3.3.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적 특징	34
3.3.1.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 양상	34
3.3.2.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특징	42
3.4. 요약	61
4.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특징과 시기별 양상	62
4.1. 서언	62
4.2.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전개 양상	64
4.2.1. 신년사 텍스트의 주제 전개	64
4.2.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전개 특징	68

4.3.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 양상	77
4.3.1.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	77
4.3.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기능 특징	85
4.4.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양상	93
4.4.1.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93
4.4.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어휘 특징	102
4.5. 요약	112
 5.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표 차 례

<표 1> 역대 대통령 신년사 목록	7
<표 2> 말하기의 유형	11
<표 3> 연설의 유형	12
<표 4>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	14
<표 5> 텍스트 연구 과제	20
<표 6>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청자 호칭	27
<표 7> 대통령 신년사의 구별 기호	32
<표 8> 대통령 신년사의 Sn과 Pn	41
<표 9> 대통령 신년사 도입 구성	43
<표 10> 대통령 신년사 전개 구성	49
<표 11>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구성	54
<표 12> 대통령 신년사의 명제 구성	60
<표 13> 대통령 신년사의 시기별 구분	62
<표 14> 텍스트 기능을 드러내는 표지, 수행동사와 문장 종결형	79
<표 15>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텍스트 기능	81
<표 16>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	84
<표 17> 대통령 신년사 전개 부분, 정책별 의미단락의 수	90
<표 18>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횟수	91
<표 19>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횟수	92
<표 20> 대통령 신년사의 상위 고빈도 어휘	93
<표 21> 명사 고빈도 어휘	95
<표 22> 대명사 고빈도 어휘	95
<표 23> 1인칭 대명사의 시기별 고빈도 출현	97
<표 24> 동사의 고빈도 어휘	98
<표 25> 동사 ‘위하다’의 공기어 분포	99
<표 26> 형용사 고빈도 어휘	100
<표 27> 관형사, 부사의 고빈도 어휘	101
<표 28> 195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03
<표 29> 196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04
<표 30> 197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05
<표 31> 198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07
<표 32> 199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09
<표 33> 200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10
<표 34> 201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111

그 립 차 례

[그림 1]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개념	16
[그림 2] Van Dijk의 거시구조 및 거시규칙	17
[그림 3] 텍스트와 개별 텍스트의 관계	20
[그림 4] 대통령 신년사의 유형 관계	21
[그림 5] 연설 텍스트의 3단계 구성	25
[그림 6]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 분석	31
[그림 7] [2-8]의 구조 분석	37
[그림 8] [7-1]의 구조 분석	40
[그림 9] 도입 부분의 명제 내용	49
[그림 10]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	53
[그림 11] 마무리 부분의 명제 내용	56
[그림 12]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구조	60
[그림 13] [2-6]의 구조 분석	70
[그림 14] 1990년대 마무리 부분의 변화	74
[그림 15]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91
[그림 16]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92

국문요지

이 논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텍스트 기능 및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언어학의 주된 연구 과제는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와 구조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시기별로 대통령 신년사 전개의 특징, 텍스트 기능의 특징,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 장의 주요 연구 과제로 전개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밝히기 위하여 주제 전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규칙을 적용하여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와 구조를 살펴보는 데, 이와 같은 연구는 신년사 텍스트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3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능을 갖는 부분텍스트의 묶음을 ‘문장, 문단, 문단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는 ‘도입, 전개, 마무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입’은 ① 새해 인사 ② 지난해 회고 ③ 국민 노력 감사 ④ 국정과제 제시의 순서로 명제 내용이 전개되었고, ‘전개’는 ① 현재 상황과 함께 6가지 국정 운영 과제인 ② 통일·안보·국방 ③ 경제 ④ 사회 ⑤ 정치 ⑥ 외교, 문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무리’는 ① 국민 협조 요청 ② 대통령 소임 의지 ③ 국가 발전 기원 ④ 새해 덕담의 순서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 구조를 정립하였다.

4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전개’, ‘텍스트의 기능’, ‘텍스트의 어휘 양상’을 확인하였다. ‘텍스트의 전개 양상’을 통해서는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과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텍스트의 기능 양상’을 통해서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정책의 제시에 있으므로 주 텍스트기능은 ‘제보기능’이 실현되었으며,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제보기능’의 순서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 고빈도 어휘 100개를 제시, 각 품사 별로 특징을 확인하였다. 고빈도 상위 10개의 어휘 중 체언은 ‘우리> 국민> 경제> 정부> 사회’의 순서로, 용언은 ‘있다> 위하다> 되다> 하다>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사의 고빈도 어휘는 ‘위하다’이며, 공기어 확인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휘와 결합하여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있다’와 ‘없다’가 고빈도 어휘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수식언의 경우에는 ‘여러, 함께, 모든’과 같이 협동의 의미를 수식하는 단어와 ‘더, 더욱’과 같이 정도성을 강화하는 어휘가 자주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사항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 및 보완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통령 신년사, 신년사 개념, 신년사 전개, 신년사 구조, 시기별 구조, 거시구조, 텍스트 기능, 시기별 신년사 기능, 어휘양상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전개와 구조를 분석하고, 텍스트의 기능 및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관찰을 목적으로 한다. 한 나라, 국가수반의 연설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하에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대통령은 연설이라는 공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한다. 보통 대통령의 연설문¹⁾에는 국가 운영에 관한 국정철학과 비전이 담긴다.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 체계는 외부 세계의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텍스트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특히 대통령의 연설 텍스트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생산자의 의도성과 수용자의 용인성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생성된다.²⁾ 정치 텍스트의 성패는 텍스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계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텍스트 생산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의도를 기호화한다.³⁾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문은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의 좋은 연구 대상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설문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대통령 신년사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문⁵⁾은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신년

1)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한 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Sakuragi, Ikki(2006)

3) 위와 같은 논문

4) 새해를 맞이하여 하는 공식적인 인사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황창호 외 2015)

유형	연설문의 유형별 분류방법
만찬사/환영사	외교순방 연설, 외국의 총리나 수상, 그리고 대통령 내외 국빈 방문 연설, 국가 간 정상회담, 국제기구 방문 연설 등 공식적 외교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대통령의 환영이나 만찬연설
기념사	각종 국경일 연설, 신문/방송사 창립기념일 연설, 국가단위의 주요 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세계문화엑스포, 전국체육대회, 민주화운동, 무역의 날, 과학의 날 등)와 관련한 대통령 연설
치사	건축물 개관, 고속도로, 지하철 착공 및 개통, 각종 도시계획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일에 대한 대통령 연설
성명/담화문	특정 사건, 국가의 중대사와 관련한 대통령 성명이나 대국민 연설

사의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정기적이며,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다. 텍스트 생산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는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전략적 텍스트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새해 계획 전달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가 운영 방안 제시

국 민 - 신년사를 통해 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파악
국가수반이 이루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안과 국정 철학 이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대통령 신년사는 해마다 발표되어 왔다. 이러한 신년사 텍스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양식을 유지하며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 신년사 텍스트에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와 형태,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반영, 수정되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텍스트 생산 당시의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은 물론, 구성원들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년사를 분석하는 일은 한 국가가 걸어온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현재(2019년)까지 역대 대통령 신년사를 연구 분석하여 그 언어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집중되어 왔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생산자가 대통령이라는 것 외에 목적과 의도가 다른⁶⁾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기준으로 묶어 분석하면, 그 특성을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신년사가 연설문의 하위 유형이기는 하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텍스트로, 본 연구를 통해 신년사 텍스트는 물론 연설문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회연설/신년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서 발생하는 대통령 연설, 신년 연설
----------	-------------------------------------

6) 만찬사, 환영사는 텍스트 수용자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하기도 하며, 축하의 의미가 담긴 연설문인 반면, 성명이나 당화문은 국가 중대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연설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설문’이라는 유형으로 묶어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신년사 텍스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일은 결국 대통령 연설문의 특징과 일반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설문과 신년사는 텍스트와 개별 텍스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 텍스트인 신년사의 구조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그 상위 유형인 연설문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일반성을 추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언어학적 관점에서 정치 연설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아직 발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정치 언어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언어는 주로 정치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텍스트 표현이나 문체, 어휘, 통사 층위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본 연구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넷째, 역대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의 의식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 신년사 텍스트에는 텍스트가 생산될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식이 담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인식과 언어체계는 물론 의사소통 특징과 변화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정치 영역에서의 언어 연구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수사학(Rhetoric)⁷⁾이라는 학문으로 연구 발전되었다. 현대의 정치 언어로는 국가 지도자(대통령)의 언어가 가장 대표적이며, 유형적으로는 연설문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주로 수사학, 정치학⁸⁾,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며, 수사학과 정치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수사학 분야의 연구로는 김범수·김민영(2006), 이귀혜(2007), 성미경(2003), 김은정(2005), 장경수(2010), 양태종(2004) 등이 있다. 김범수·김민영(2006)은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를 통해 목표하고 의도한 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하여 수사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귀혜(2007)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변호 전략을 사용하는지 수사적으로 그 차이를 알아본다. 이 연구들은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연설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용한 전략을 분석, 그 특성을 알아본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전략을 분석하는 기준인 객관적인 전략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성미경(2003)과 김은정(2005)도 대통령이 위기 상황 또는 의례 상황의 담화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징과 언어 전략을 연구한다.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언어 전략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분석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일회성의 담화문에서 공통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경수(2010)는 대통령의 연설 담론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수사 전략을 연구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태종(2004)은 수사학이 텍스트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수사학이 텍스트의 종류와 유형을 나누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지만 범주 설정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텍스트 종류가 지나치게 간략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정치학 분야의 연구로는 김명기(2002), 임학순(2012), 조규보·이형일(2013), 김혁(2014), 임주영·박형준(2015), 강국진(2017), 곽송영(2018),

7)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반면, 고대 수사학을 완성한 퀸틸라아누스는 수사학을 ‘훌륭한 말재주, 또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하인리히 F. 플렛(H. F. Plett, 2002)

8) 대통령의 언어는 정치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의 언어에 담긴 정치적인 의미나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 정치관, 정책 등을 연구한다.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리더십, 정책, 국정 가치, 이념, 정치관 등에 관한 분석⁹⁾이 중심을 이룬다.

셋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언어학 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설문의 표현 및 문체에 관한 것과 둘째, 텍스트언어학적 특징을 분석한 경우이다.

연설문의 언어 표현과 문체에 관한 연구로는 이정복(2003)(2007), 김병홍(2017), 주희민(2013), 김현국(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정복(2003)(2007)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경어법과 언어 사용 전략에 대해 분석(2003)한다. 또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2007)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해서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통령의 언어 사용 전략이 권위와 힘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김병홍(2017)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고빈도 어휘를 분석, 어절 수에 따른 대통령 간의 언어 차이는 물론, 명사, 동사 등의 품사별 어휘 사용 비율을 분석하여 취임사의 언어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주희민(2013)은 이명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지칭, 대체, 생략, 접속 등 문법적 응결 장치를 대조하여 연설문의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현국(2001)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취임사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은 물론, 어휘, 문법, 통사 층위의 특징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연설문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연설문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성과로는 임성우(2016), Sakuragi, Ikki(2006)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나는 텍스트성을 분석하였으며, 김선경(2014)은 중국 정치지도자의 연설문을, 김종영(2000)은 히틀러 연설문의 텍스트성을 분석한다. 반면 유동엽(2007)과 이재원(2013)은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텍스트성을 고찰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 지도자의 정치 연설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 연구 대상의 텍스트성을 밝히고자한 연구들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정치 언어 분야의 연구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정윤희(2019)의 경우 역대 대통령 신년사에 나타난 언어 표현을 고찰한 연구로,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별 어휘 사용 양상과 언어 표현 전략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흥미롭지만, 방대한 분량의 신년사에 비해 깊이 있는 고찰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박지민(2016)

9) 본 연구는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이므로, 정치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의 정책, 이념, 철학, 등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의 신년사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대통령 신년사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거시구조, 텍스트 기능 등을 살펴보려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통령의 언어는 주로 연설문에 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연설문의 하위 유형의 연구로는 취임사 연구와 간단한 신년사 연구가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연구들은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전략이나 표현 등을 분석하는데 그친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 관점에서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텍스트 기능 및 특성을 고찰하여 텍스트 연구 및 대통령 연설문 연구의 다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2019년)까지 대통령 신년사¹⁰⁾ 텍스트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월에 첫 신년사를 시작으로 현재인 2019년까지 매년 연초에 대통령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대통령 신년사는 <표 1>과 같으며, 해당 신년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역대 대통령 신년사 목록

번호	발표연도	대통령	번호	발표연도	대통령	번호	발표연도	대통령
(1)	1949년	이승만	(25)	1973년	박정희	(48)	1997년	김영삼
(2)	1950년		(26)	1974년		(49)	1998년	
(3)	1951년	미발표	(27)	1975년		(50)	1999년	김대중
(4)	1952년	이승만	(28)	1976년		(51)	2000년	
(5)	1953년		(29)	1977년		(52)	2001년	
(6)	1954년		(30)	1978년		(53)	2002년	
(7)	1955년		(31)	1979년		(54)	2003년	
(8)	1956년		(32)	1980년	최규하	(55)	2004년	노무현
(9)	1957년		(33)	1981년	전두환	(56)	2005년	
(10)	1958년		(34)	1982년		(57)	2006년	
(11)	1959년		(35)	1983년		(58)	2007년	
(12)	1960년	미발표	(36)	1984년		(59)	2008년	이명박
(13)	1961년		(37)	1985년		(60)	2009년	
(14)	1962년		(38)	1986년		(61)	2010년	
(15)	1963년		(39)	1987년		(62)	2011년	
(16)	1964년	박정희	(40)	1988년	미발표	(63)	2012년	박근혜
(17)	1965년		(41)	1889년	노태우	(64)	2013년	
(18)	1966년		(42)	1990년		(65)	2014년	
(19)	1967년		(43)	1991년		(66)	2015년	

10) 대통령 신년사의 전문은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pa.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 연설문의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나머지 신년사는 한국정책방송원(ktv.go.kr)의 대통령 신년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0)	1968년		(43)	1992년		(67)	2016년	
(21)	1969년		(44)	1993년	미발표	(68)	2017년	미발표
(22)	1970년		(45)	1994년	김영삼	(69)	2018년	문재인
(23)	1971년		(46)	1995년		(70)	2019년	
(24)	1972년		(47)	1996년		총 63회(미발표 8회)		

<표 1>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 신년사는 총 63회 발표되었고, 미발표¹¹⁾된 경우는 8회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258,484 글자, 77,235 어절로 된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 63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전개 및 구조를 명확히 한 후,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구조를 분석하게 된다. 텍스트의 전개 분석은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기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신년사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어휘별, 품사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텍스트의 전개, 기능, 어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1) 신년사 미발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51년	한국전쟁	1963년	신년사 미발표
1960년	신년사 미발표	1988년	대통령 선거
1961년	신년사 미발표	1993년	대통령 선거
1962년	신년사 미발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발표

1951년은 한국 전쟁의 발발로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1960년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961년~1962년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지만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1963년의 경우에는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으로서 신년사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대통령 신년사가 아니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988년과 1993년은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던 관계로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고,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 역시 공식적인 대통령 신년사가 아니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과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텍스트는 개념의 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인지적 구성체인데, 본 연구에서는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규칙을 적용하여 신년사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규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또한 텍스트의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텍스트 기능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구조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각 층위별 명제구조를 살핀다. 우선 신년사 텍스트의 묶음을 문장→문단→문단군으로 나누고, 문단군을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 구성으로 분류, 각 문단군 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형태를 구조로 나타내보고자 한다.

4장은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전개와 기능,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3장에서 분석된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 구조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로 신년사 텍스트는 어떠한 구조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게 된다. 또한 텍스트의 기능 양상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와 목적을 관찰한다. 그리고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계량적 분석을 통한 품사별 고빈도 어휘 연구를 통해 텍스트가 생산될 당시,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 화두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정리, 검토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및 보완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제2장 대통령 신년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서언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연구를 통해 대통령의 ‘신년사’가 가지는 텍스트성을 밝히고 일반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언어학적 방법론은 무엇이 있으며,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과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년사’의 상위 유형인 ‘연설문’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설문의 특징을 고찰하여 그 하위 유형인 신년사의 개념을 추론해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연설문이 가지는 의미도 살펴본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는 ‘신년사 텍스트’ 연구를 위해 ‘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고, 텍스트 연구의 방향에 대해 짚어 본다. 언어 형성체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 있고,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 고찰해 본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 분석이 주로 다루었던 분야인 텍스트 내 ‘문장의 응집성’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 보다 확장된 범위의 응집성인 ‘거시구조’의 연구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목적이자 의도인 ‘텍스트 기능’은 무엇이며, 그 연구 방향에 관해서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텍스트와 개별 텍스트의 관계를 살펴보고, 텍스트 유형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별 텍스트인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텍스트 유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2.2.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과 특징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 이해는 ‘신년사’의 상위 유형인 ‘연설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김현국(2001)은 연설¹²⁾이란 한 사람의 화자가 여러 청중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장을 펼쳐, 청중을 설득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말하기(speech)의 한 형태라고 정의한다. 이주행(2006)도 연설은 연사인 화자가 일정한 목적(정보 전달, 설득, 오락, 친교, 교육 등)에 도달하기 위해 청중인 청자에게 하는 말하기의 한 형태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의 공통점은 연설이 주로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speech)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반면 박덕유(2003)는 청자의 공감에 방점을 두어, 화자인 연사가 많은 대중인 청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지론(持論)을 전달함으로써 화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청자가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표 2> 말하기의 유형 (Sakuragi, Ikki 2009:14)

말하기 방식	공식적 말하기		비공식적 말하기	
	혼자 말하기	상대와 말하기	혼자 말하기	상대와 말하기
설득	연설	토의, 토론, 회의, 인터뷰	독백	대화
정보전달	강의			
친교, 정서표현	식사(式辭), 구연	극본 낭송		

<표 2>은 Sakuragi, Ikki(2009)가 분류한 말하기의 유형으로 연설과 말하기의 차이점을 표를 통해 설명한다. <표 2>에 의하면 연설을 구성하는 자질은 [+공적], [+설득성], [+독화성], [+문어성], [+즉흥성¹³⁾], [+친교성], [+논증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Sakuragi, Ikki 2009; 20).

이와 같은 연설의 자질 연구를 통해 연설문의 정의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연설문은 연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설득적, 독화적, 친교적, 논증적 성격의 공적 말하기 텍스트이다. 신년사는 연설문의 하위유형이므로 위와 같은 연설문

12)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이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3) [+즉흥성]에 해당되는 연설은 [가두연설]이 있고, [-친교성]에 해당되는 유형은 [추모사]가 있으며, [-논증성]을 가진 유형은 [만찬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의 성격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년사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연설의 유형에 따른 신년사의 개념을 살펴본다.

연설의 유형에 관한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양태종 2004; 9).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을 ‘시간, 장소, 청자의 태도’에 따라 ‘법정연설’, ‘정치연설’, ‘식장연설’로 구분하였다.

<표 3> 연설의 유형

	시간	장소	청자의 태도
법정연설	과거의 일	법정	적극적 태도 요구
정치연설	미래의 일	민회	태도의 변화 요구
식장연설	현재의 일	행사장	현재를 즐길 것을 요구

‘법정연설’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청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연설을 말하며, 미래의 일이 민회에서 이루어질 때는 ‘정치연설’로 보았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태도가 변화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식장연설’은 행사장에서 현재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즐길 것을 요구하는 연설이다.

한편, 연설은 발표되는 방식에 따라 ‘즉석연설, 메모연설, 원고연설’로 나눌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연설과 설득 연설’로도 나눌 수 있다(박덕유 2003). 이 기준에 의하면 ‘대통령 신년사’는 원고 연설이며, 정보 전달과, 설득,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진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신년사’는 구어의 형태로 발표되지만, 미리 작성된 원고를 읽는 까닭에 문어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반성하고, 새해에 실시될 정책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목적과,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얻으려는 설득적 목적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 신년사’¹⁴⁾의 경우, 말하기 유형 면에서는 연설문의 하위 범주에 속하며, 연설의 유형 면에서는 ‘정치연설’에 해당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경우 ‘정치연설’의 장소가 민회였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연설이 진행된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공적 표현 양식으로 정권의 가치 지향이나 국정 목표, 국정 철학 및 방향을 규정하고 제시한다(이창길 2010). 그리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가 관리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 국민의 지지를 통해 결속을 다지며, 때로는 설득을 통

14) 대통령의 연설 중, ‘환영사’나 ‘추모사’, ‘경축사’와 같은 연설은 ‘식장연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 중 다수는 ‘정치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황창호 외 2015). 이러한 행위는 모두 대통령 신년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정치담화’라는 증거이다.

‘정치담화’는 ‘정치라는 주제에 관한 공적 의사소통’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의 연설, 국회에서의 질문과 답변, 정당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 그리고 대중 집회를 비롯한 선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 정치담화는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대중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기술로, 반드시 언어적 능력과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Rhetoric)이라고 할 수 있다(이원표 2015).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담화적인 성격을 지닌 공적 의사소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설문의 하위 유형인 신년사의 특징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신년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는 공식적인 인사말’¹⁵⁾로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¹⁶⁾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보았듯,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담화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년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박찬욱(2009)은 통념상 신년인사라고 하면 개인적인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지도자의 신년인사는 국가의 과거 1년을 정리하고 향후 1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공적 담화로 분류되며, 신년사를 통해 국가 이념과 정책이 제시된다고 설명한다. 박지민(2016)은 국가수반의 신년사는 개인이 나누는 새해 덕담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평가와 새해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며, 대통령의 신년사는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텍스트로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신년사’가 정치담화의 일종임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신년사’가 일반적 정치담화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신년사는 국가에 특별한 사변이 없는 한,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정기적인 성격의 담화이다. 매년 발표되는 신년사 안에는 한 국가의 지도자, 나아가 한 국가가 걸어오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제시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신년사 모두를 모아 살펴보는 일은 그 국가가 지나온 역사를 반추해 보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함께 그들의 의사소통 특징을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은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6) [그림 4] 신년사의 유형에서 확인하였지만, 신년사는 텍스트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격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나 학교의 총장, 국회의장, 시장 등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화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년사는 접촉기능이 주된 목적이 된다.

<표 4>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

1. 연설 대상	화자-국가수반, 청자-국민
2. 연설 시기	정기적으로 매년, 연 초 발표
3. 연설 방식	원고 연설 텍스트
4. 연설 형식	구어(문어적 성격)
5. 연설 의도	전략적으로 생산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계획, 설계됨
6. 연설 목적	공적 의사소통 목적(정보전달, 설득)의 정치담화 텍스트
7. 연설 자질	+공적, +설득적, +독화적, +친교적, +논증적
8. 연설 유형	미래의 일에 관해 청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연설 텍스트

‘대통령 신년사’란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화자가 되어 청자에게 발화하는 텍스트로, 매년, 연 초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구어의 형식을 가진 원고 연설 텍스트이다. ‘대통령 신년사’는 공적 의사소통을 목적(정보전달, 설득)으로 하는 정치담화 텍스트로, 생산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계획되고 설계되는 전략적 텍스트이다. 또한 그 성격을 자질로 나타내면 +공적, +설득적, +독화적, +친교적, +논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설의 유형 상, 미래의 일에 대해 청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연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3. 신년사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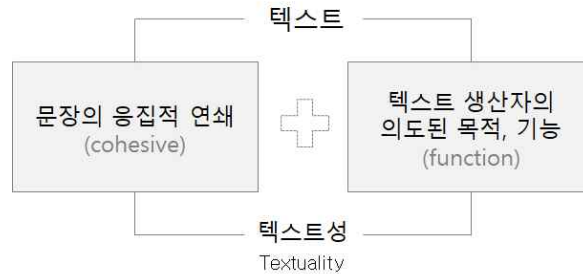
2.3.1. 텍스트와 텍스트 구조

일상적으로 텍스트란, ‘언어로 된 길거나 짧은 글’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 문제에 깊이 몰두 했던 가장 오래된 연구 형태로는 수사학(Rhetoric)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사학자들은 공공석상의 웅변가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Beaugrande & Dressler 1980). 그들이 전통적으로 견지했던 관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텍스트 생산자가 수신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수사학적 텍스트를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는 브링커(Brinker 1985)가 “텍스트는 인지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을 알려주는 언어 기호들의 한정된 연속체”라고 정의한 텍스트의 개념과 통하는 면이 있다.

초기,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텍스트의 개념을 문장의 상위 개념 정도로 이해해 왔다. 이후, 구조주의자들은 텍스트를 ‘문장들의 응집적인(cohesive) 연쇄’로 정의하였고, 기능주의자들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접촉방식’으로 정의한다. 전자에 의하면 텍스트성(textuality)은 응집성이 되고, 후자에 의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목적, 또는 텍스트의 기능(function)에 해당된다(신명선 2008; 195-196).

이에 대해 신명선(2008; 197)은 텍스트의 응집성과 텍스트의 기능은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언어 체계의 범주에 의한 구성체이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의 단위로서 언어 체계를 준거로 기호화 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의 응집성과 텍스트의 기능은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하여서는 안 되며, 응집성과 텍스트의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텍스트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체적인 텍스트의 기능(function)을 갖는 언어 기호들의 응집적(cohesive)연쇄이며, 텍스트성은 응집성과 텍스트의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¹⁷⁾

17) 고영근(1999)은 텍스트를 ‘인간의 의도적인 언어표현이나 언어로 번역 가능한 기호’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성만(2006)은 텍스트의 구조를 텍스트성이라 보고, 텍스트성을 문법적 측면과 의사소통적 측면으로 구분, 텍스트를 명제 구조와 행위 구조로 된 언어적 의사소통 단위로 보았다. 이석규(2001)는 텍스트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산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음성 형태의 발화와 문자로 적힌 문학작품, 그리고 음향이나 음성, 그림, 사진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다중매체도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림 1] 텍스트와 텍스트성의 개념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응집성(cohesive)¹⁸⁾의 개념을 문법적인 관계와 의미적인 관계로 구분¹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자를 응결성(cohesion)으로, 후자를 응집성(coherence)이라는 술어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둘을 명시적으로 구분 짓기²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응집성(cohesive)을 문법적 연결 관계와 의미적 연결 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신명선 2008; 198-199)’이다.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문법적 연결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의미적 연결 관계인 개념들을 파악, 이를 확장시켜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구성체는 하나의 망(network)으로 연결되고 통일성 있는 개념인 ‘주제’를 형성한다. 텍스트는 바로 개념의 망이라 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연구는 문장이나 문장의 연결 관계를 통해 해당 텍스트의 텍스트성²¹⁾을

18) 신명선(2008 ; 199)은 ‘응집성’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신명선(2008)의 응집성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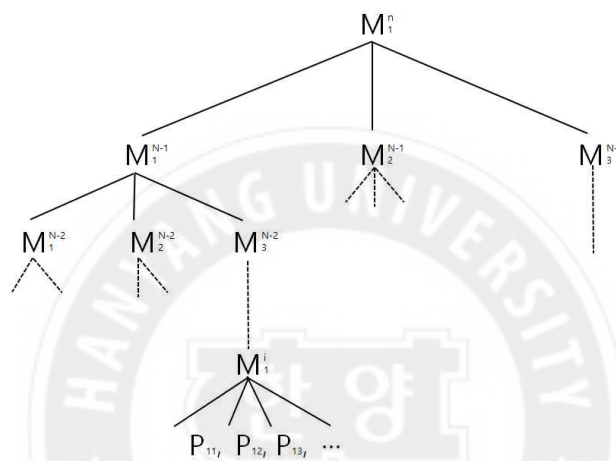
	정적(static)	동적(dynamic)
기능	유지(maintenance): 화제(topic)를 유지하는 수단	발전(development): 화제(topic)를 발전시키는 수단
특징	필수적	임의적, 선택적
종류	연속이나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어휘 반복, 3인칭 대명사, 대치, 생략, 병렬 구조 등	인과 관계나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 등

19) 그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Beaugrande & Dressler(1980)를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특성을 7가지로 정의하였는데 ① 응결성(cohesion) ② 응집성(coherence) ③ 의도성 ④ 용인성 ⑤ 정보성 ⑥ 상황성 ⑦ 상호텍스트성이 그것이다. 이 중 ① 응결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이 Cohesive에 해당된다.

20)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녀 나이 50세였다.]에서 ‘엄마’와 ‘그녀’는 선행사와 대명사의 관계인데, ‘엄마’와 ‘그녀’가 동일 인물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의 의미를 고려해야만 한다.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범위인 텍스트의 총괄적 구조, 즉 거시구조²²⁾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Van Dijk(1980)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구조는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2]에서 명제 $\langle P_{11}, P_{12}, P_{13}, \dots \rangle$ 은 거시구조 첫 번째 차원에서 M_1^i 으로 기술되며, 최고차원 M^n 까지 기술²³⁾될 수 있다.



[그림 2]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및 거시규칙

Van Dijk(1980)는 거시구조 및 거시구조 규칙의 의미적 기능은 일련의 명제 M^n 단위들을 구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림 2]의 명제 $\langle P_{11}, P_{12}, \dots \rangle$ 가 총괄적 명제에서 볼 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제들은 일련의 명제 전체를 다른 일련의 명제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langle P_{11} \dots P_{20} \rangle$ 과 $\langle P_{21} \dots P_{40} \rangle$ 이 그것이다. 거시규칙이 없다면, P_{20} 은 다만 두 명제 순서에서 P_{21} 과 관계

21) Van Dijk(1980)는 텍스트의 문장의 구조와 문장 연속 구조를 '미시구조'로, 텍스트가 가진 총괄적 의미구조를 '거시구조'라고 명명한다.

22) Van Dijk(1980, 75)는 '미시구조와 거시구조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미시구조는 일련의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구조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을 구분 짓는 방법은 <더 낮은> 차원에서의 특수한 구조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총괄적 성질을 지닌 구조가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텍스트의 미시구조가 다른 텍스트에서 거시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시호 1995)

23) 차원의 번호는 M의 오른쪽 위에 오는데, 이것은 각기 명제가 해당 거시차원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n=0$ 일 경우도 가능한데, 이때는 미시차원과 거시차원이 동일하다. 위 책과 같음, 75.

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명제는 비록 텍스트 기저에서는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연결 되지 않거나 서로 간에 아무런 결속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²⁴⁾ 있다. 거시구조에서 관계라는 것은 ‘전체’에 관련된 것이지, 전체 중의 여러 요소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거시구조는 배열된 여러 명제에 거시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정시호 1995; 76-77).

그렇다면 텍스트를 연구함에 있어 거시구조를 밝혀야 하는 이유와, 거시구조를 설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도 Van Dijk(1980)는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한다. 언어사용자는 텍스트에서 보다 큰 의미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의 텍스트로부터 하나의 주제, 혹은 여러 주제를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언어사용자가 텍스트를 요약함으로써 원래 텍스트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재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극히 특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일련의 개념들이 선적 연관성을 가지는 거시구조가 아니라면, 언어사용자들은 ‘너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가?’, ‘네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계속 물어보아야만 할 것이다(정시호 1995; 78-79). 따라서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해당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밝히고 텍스트의 유형을 알아내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3.2. 텍스트 기능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또는 발화는 일정한 방식으로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나 하품하기와 같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인 행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나 발화는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언어행위로 볼 수 있다.

언어적 기호 체계를 근거로 한 텍스트나 발화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규칙적이라는 특징도 가진다. 언어행위는 보통 같은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습득된 규칙에 의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당사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처해지는 여러 상황과 조건에 맞는 공통된 언어 지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통된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규칙이 수행되었을 때, 텍스트나 발화의 생산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의사소통의 목표가 달성된다. 말하자면 언어행위의 규약성은 화자가 발화를 함으로써 청자로부터 바라는 바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

24) 예를 들어, 내가 이웃에게 인사를 할 때, 이웃과 내가 손이 닿아 있지만, 그것이 꼭 ‘나의 손’이 ‘이웃의 손’에게 인사를 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이러한 전제를 기본으로 텍스트의 생산자들은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내에 규정된 수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향해 표현된 접촉 방식이 바로 텍스트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연구함에 있어 텍스트가 수신자를 향해 표현된 접촉 방식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이를 ‘텍스트 기능’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기능에 대해 탐구한 학자들은 그로세(Große 1976), 뵐러(Bühler 1934), 귤리히와 라이블레(Gulich & Raible 1975)를 들 수 있다. 그로세(Große 1976)²⁵⁾는 텍스트의 기능을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구속력 있게 규정된 수단들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표현된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라고 보았다. 이는 수신자가 인식해야 하는 생산자의 의도, 수신자에 대한 생산자의 지침(교시)을 일컫는다. 반면 뵐러(Bühler 1934)는 언어를 ‘도구’(organon)로 보면서 이것을 이용하여 생산자는 수신자와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았다. 언어 기호는 현실의 대상과 사태에 대해 ‘상징’으로서, 생산자의 내면성의 ‘징후’로서, 생산자가 수신자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신호’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하여 귤리히와 라이블레(Gulich & Raible 1975)는 뵐러(Bühler)의 ‘상징’을 ‘표현 기능’으로, ‘징후’를 ‘서술 기능’으로, ‘신호’를 ‘호소 기능’으로 개념 정의한다.

- (1) 그로세(Große) → 텍스트의 기능은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 지침(교시)
- (2) 뵐러(Bühler) → 언어는 도구이며, 언어 기호는 상징, 징후, 신호의 기능을 함
- (3) 귤리히와 라이블레(Gulich & Raible) → 텍스트는 표현기능, 서술기능, 호소기능을 함

텍스트 기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텍스트의 기능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를 통해 추구하는 바, 이루고자하는 바, 즉 텍스트로 추구하려는 의사소통 의도라고 할 수 있다.

2.3.3. 텍스트 유형

인간의 언어 형성체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텍스트언어학의 주된 연구 과제는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밝히고

25) 그로세(Große)는 텍스트 기능의 구성 요소들을 공식으로 설명한다.

텍스트 기능=(+/- 행위 규칙)(+/- 선행 표지)(+/- 호소 요인)+상위 명제적 근거+명제 유형(선행 위치는 경우에 따라 우위성을 의미해야 한다) (정시호 1995: 133)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개별 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의 일반적인 속성을 찾고, 이렇게 밝혀진 속성을 이용해 다시 개별 텍스트에 적용, 그 설명력을 확인하고 한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개별 텍스트는 특정한 텍스트의 실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류의 텍스트 유형이 범례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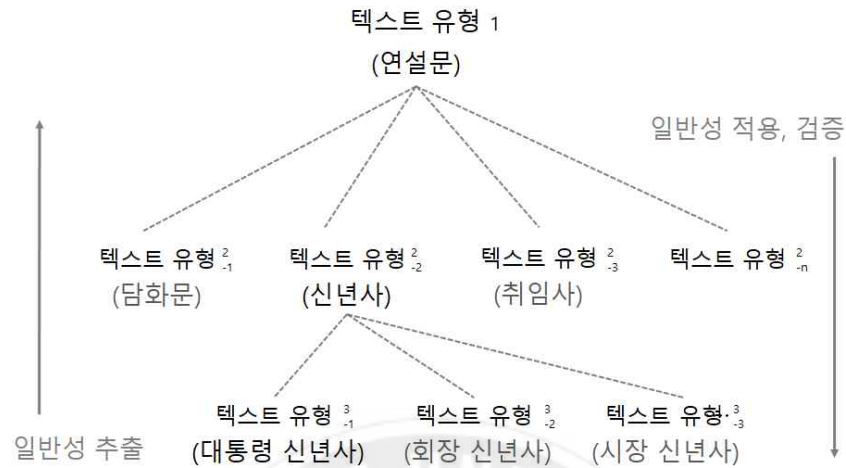
[그림 3] 텍스트와 개별 텍스트의 관계(텍스트언어학회 2004:168)

개별 텍스트는 일반적인 텍스트의 속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특정 텍스트 집단의 대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언어적,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가진 텍스트 집단을 텍스트 유형이라고 한다. 텍스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 등 텍스트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텍스트 집단을 조사하여 그 특징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구분, 일정한 텍스트 유형의 구성적 자질을 기술하는 작업도 텍스트 연구의 과제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언어학의 과제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눌 수 있다(텍스트언어학회 2004)

<표 5> 텍스트 연구의 과제

텍스트 일반 연구	텍스트 유형 연구
개별 텍스트에 나타나는 텍스트의 일반적 속성 찾기	유사한 여러 개별 텍스트가 속하는 일정한 텍스트 집단의 고유한 특성 찾기

텍스트 유형 연구는 텍스트의 유형을 나누어 특정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텍스트의 유형은 각 텍스트의 특징과 요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텍스트는 단계에 따라 층위를 나눌 수 있고, 해당 층위 별로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4] 대통령 신년사의 유형 관계

[그림 4]는 ‘대통령 신년사’와 유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층위별로 분류한 것이다. ‘대통령 신년사’는 ‘신년사’의 하위 차원에 속하고, ‘회장 신년사’, ‘시장 신년사’와 같은 층위를 이룬다. 이들은 연설문의 최하위 차원에 속하며, 구체적인 단계인 개별 텍스트에 해당된다. 반면 ‘신년사’는 ‘담화문’, ‘취임사’ 등과 함께 ‘연설문²⁶⁾’의 하위 차원이며, ‘연설문’은 이 모든 유형의 상위 단계에 속한다. [그림 4]의 하위 차원인 개별 텍스트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하여 일반성을 추출하면, 그 보다 상위 단계인 ‘신년사’, 더 나아가 ‘연설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연설문’과 ‘신년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시 개별 텍스트인 ‘회장 신년사’, ‘시장 신년사’ 등에 적용,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텍스트인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텍스트성’이라 함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언어 기호들의 구조적 응집성(cohesive)을 살펴보는 것을 말하며, 신년사 텍스트가 가지는 텍스트의 기능(function)인 의사소통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대통령 신년사의 상위 유형인 연설문 텍스트의 일반성을 찾고, 향후 이를 통해 하위 개별 텍스트들의 성격과 특징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6) 홍명중(2017)은 연설문의 하위 유형으로 연설, 말씀, 축사, 답사, 만찬사, 치사, 오찬사, 경축사, 신년사, 기념사, 취임사, 추념사, 담화문, 환영사, 기자회견, 환영사 등으로 나누었다.

2.4. 요약

본격적인 ‘대통령 신년사’ 연구에 앞서 2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개념과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알아보았다. 우선 ‘대통령 신년사’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신년사’란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화자가 되어 청자에게 발화하는 텍스트로,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구어의 형식을 가진 원고 연설 텍스트이다. ‘대통령 신년사’는 공적 의사소통을 목적(정보전달, 설득)으로 하는 정치담화 텍스트로, 생산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계획되고 설계되는 전략적 텍스트이다. 또한 그 성격을 자질로 나타내면 +공적, +설득적, +독화적, +친교적, +논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설의 유형 상, 미래의 일에 대해 청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연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 되는데, 하나는 문장들의 응집적(cohesive)인 연쇄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접촉방식이다. 이 말은 결국 텍스트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체적인 텍스트의 기능(function)을 갖는 언어 기호들의 응집적(cohesive)연쇄이며, 텍스트성은 응집성과 텍스트의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문법적 연결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의미적 연결 관계인 개념들을 파악, 이를 확장시켜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구성체는 하나의 망(network)으로 연결되고 통일성 있는 개념인 ‘주제’를 형성한다. 텍스트는 바로 개념의 망이라 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성을 밝히는 것은 문법적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텍스트를 개념의 망인 주제를 살피는 일도 중요해진다. 텍스트의 응집성은 거시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규칙을 알아보았다. 또한 텍스트를 연구함에 있어 거시구조를 밝혀야 하는 이유와, 거시구조를 설정하는 목적도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생산자들은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내에 규정된 수단을 이용하여 수신자와 접촉하는데 이것이 텍스트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연구함에 있어 텍스트가 수신자를 향해 표현된 접촉 방식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이를 ‘텍스트 기능’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기능에 대해 탐구한 학자들은 그로세(Große 1976), 뵐러(Bühler 1934), 귄리히와 라이블레(Gülich & Raible 1975)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텍

스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그로세(Große) → 텍스트의 기능은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 지침(교시)
- (2) 뵐러(Bühler) → 언어는 도구이며, 언어 기호는 상징, 징후, 신호의 기능을 함
- (3) 귤리히와 라이블레(Gülich & Raible) → 텍스트는 표현기능, 서술기능, 호소기능을 함

텍스트 기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텍스트의 기능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를 통해 추구하는 바, 이루고자하는 바, 즉 텍스트로 추구하려는 의사소통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언어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개별 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의 일반적인 속성을 찾고, 이렇게 밝혀진 속성을 이용해 다시 개별 텍스트에 적용, 그 설명력을 확인하고 한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개별 텍스트는 일반적인 텍스트의 속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특정 텍스트 집단 대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언어적,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가진 텍스트 집단을 ‘텍스트 유형’이라고 한다. 텍스트 유형 연구는 텍스트의 유형을 나누어 특정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석된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일반성을 찾고, 향후 이를 통해 하위 개별 텍스트들의 성격과 특징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구조 분석

3.1. 서언

이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와 구조를 알아보고, 각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과 하위 텍스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명제, 혹은 문장 간의 결합으로 하위 텍스트를 형성하고, 이 하위 텍스트들이 결합하여 보다 큰 상위의 텍스트를 이룬다. 하나의 전체 텍스트는 이러한 상, 하위 텍스트가 여러 층위를 이루어 형성되고, 거시명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부분텍스트가 나열된 것만으로는 완결된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 없다. 각각의 부분텍스트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완결되고 통일된 의미를 전달하여야 한다.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이를 결속성이라는 술어로 표현한다. 따라서 하나의 전체 텍스트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상, 하위 텍스트들의 여러 층위를 추출, 해당 층위나 부분텍스트의 명제와 결속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거시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시구조의 파악은 텍스트의 응집성(cohesive)을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명제 구조를 분석하여 각 부분텍스트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앞선 2장에서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신년사는 연설문의 하위 범주로,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설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대개 연설문은 몇 개의 부분텍스트로 이루어지는데, 3분법에서 7분법²⁷⁾까지 다양한 구조로 설명된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3분법으로 구조화하여 명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48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지금(2019)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며,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 각 시기별 텍스트의 구조를 알아본다. 또한 각 부분텍스트가 지닌 명제구조의 분포와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문장을 가장 하위 단위로 하여, 각 층위의 명제구조를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하여 나온 각각의 형태들을 의미단락별로 분류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파악할 수 있다.

27) 3분법이라 함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말한다. 4분법은 ‘들머리, 열거리, 밝히기, 마무리’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반면, 토머스 윌슨의 경우엔 ‘도입부, 서술, 명제 제시, 분할, 확인, 반론, 결론’의 7단락으로 구분한다(백미숙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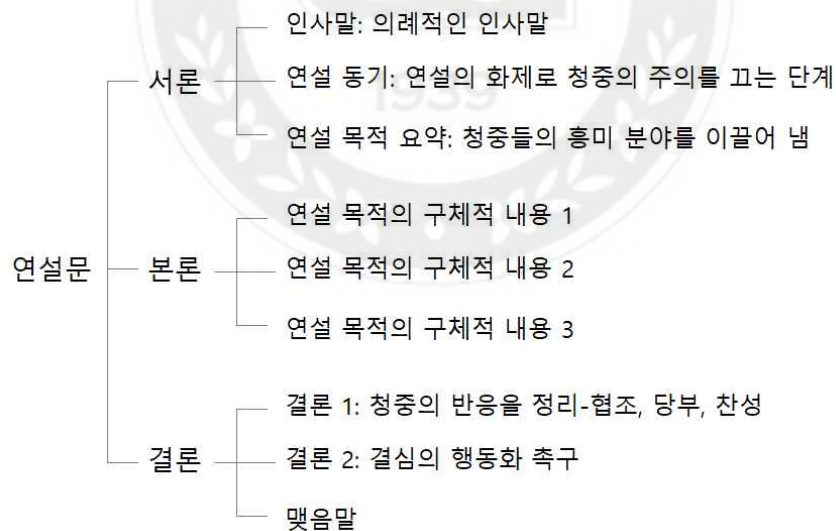
3.2 신년사 구조의 모형

본 절에서는 신년사의 층위별 명제 구조를 살펴보고,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신년사를 3단계 구성으로 나누고, 각 구성의 전개와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어떻게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체계를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다.

3.2.1. 신년사의 전체 구조

신년사는 연설문의 하위 범주로 기본 구조는 연설문에 바탕을 둔다. 백미숙(2002)은 하나의 연설문 텍스트는 ‘의의(意義) 단위들로서 일정한 기능을 갖는 부분텍스트들로 구성’되며, 이 부분텍스트들의 ‘종류, 순서, 연결 관계를 통해 텍스트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연설문은 부분텍스트의 종류, 순서, 연결 관계에 따라 3단 구성, 4단 구성, 7단 구성을 가진다.

송명(1996; 112)은 연설 텍스트의 3단계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림 5] 송명(1996)에서 설정한 연설 텍스트의 3단계 구성

3단계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연설 텍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플라톤(Platon)의 연설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연설문에서 서론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설의 목적, 동기와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며, 청중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수사학에서 서론의 기능을 호감-관심-이해(송영 1996)의 순서로 설명한다. 양태중(1993)은 연설문의 서론을 ‘들머리’라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들머리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청중의 호감을 사고, 관심을 끌며, 이해를 도와, 그들이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도록 하는 곳”이다(양태중 1993; 105).

본론은 연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설명되는 부분으로, 주제에 맞는 적절한 논거가 제시된다. 연설문의 핵심은 바로 본론에 있으며, 화자의 연설 목적과 의도가 적절하게 드러나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논점의 안배가 이루어진다.

결론은 연설을 요약, 정리하거나 화자나 청자의 행동을 유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태중(1997)은 결론을 연설이 끝나는 부분으로, 본론에 제시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반복 하거나, 제안이나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서론과 마찬가지로 결론도 호감을 사는 감정수단을 사용하는 원칙이 적용된다”(양태중 1997; 173)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신년사에서 어떤 형태로 호감과 감정수단을 사용하는지 3.3.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신년사를 3단계 구성으로 설정하고, 구성단위를 ‘도입’, ‘전개’, ‘마무리’²⁸⁾라고 명명한 후, 분석한다. 이제 각 층위별 특징을 알아보자.

1) 도입

‘도입’은 대통령 신년사의 서론 부분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인사말’과 ‘연설 동기’, ‘연설 목적’과 같은 내용이 담긴다. ‘인사말’은 보통 청자에 대한 호칭으로 시작된다. 청자 호칭은 연설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언어 표지가 된다. 신년사의 경우에도 청자 호칭으로 시작이 되며, 도입 부분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미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고루 깃들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1967 박정희>

28) 연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구성을 가지지만, 신년사의 경우에는 설득의 목적과 함께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므로,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명명한 후 분석하고자 한다.

(2)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내리는 해가 되고 아울러 사회와 나라 전체에도 축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81 전두환>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2000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의 화자는 대통령이고, 청자는 국민이다. ㉠, ㉡, ㉢과 같이 대통령 신년사의 ‘인사말’은 청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된다. 호칭은 ㉠의 경우에서처럼 꾸며주는 구절이 없이 부름말만 제시하는 경우와 ㉠, ㉢과 같이 청자와의 거리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구절을 넣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6>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청자 호칭

	대통령	부름말
1	이승만	X
2	박정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3	최규하	X
4	전두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5	노태우	여러분
6	김영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7	김대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	노무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	이명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	박근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	문재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표 6>은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에 나타난 청자 호칭의 예이다. 이승만, 최규하의 경우에는 청자 호칭인 부름말이 없이 인사가 시작되지만, 나머지에서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지가 나타난다. 이 표지는 전개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단락의 바깥을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 표지가 된다.

대통령 신년사는 청자 호칭인 부름말 다음으로 인사말이 나오는데 화자인 대통령이 청자인 국민의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는 신년사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는 새해 첫 메시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인사말 이후, 도입 부분에는 ‘연설의 동기’나 ‘연설의 목적’이 드러난다.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의 ‘연설 동기, 목적’이 드러난 예이다.

(4)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 드리하고자 합니다. <1996 김영삼>

(5)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09 이명박>

(4)와 (5)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 신년사의 ‘연설 동기와 목적’은 한 해의 국정 운영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국민의 동참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통해 청자는 화자가 신년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 전개

‘전개’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해의 국정 운영 방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국방, 통일, 외교 등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정책을 제시, 실천 방향, 비전 등이 담긴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6) 이제까지 우리 힘이 잘 미치지 못했던 중화학공업, 종합제철, 기계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육성하고, 수출산업과 전력이나 수송력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현대화를 기하여, 제2차 5개년계획 사업을 더욱 촉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1969 박정희>

(7)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2015 박근혜>

(6)은 경제에 관한, (7)은 의료 복지에 관한 정책이 담겨 있다.

3) 마무리

‘마무리’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중간에서 제시된 여러 국정운영과 그 정책에 관하여 협조나 당부, 행동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8) 우리는 엄연한 법치국가의 문화국민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을 굳게 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국민적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80 최규하>

(9)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5 노무현>

(8)과 (9)는 국민적 합의와,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화자의 당부, 협조의 내용은 ㉠과 ㉡에서와 같이 직접, 또는 간접적 술어 표지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당부의 말이 끝나면 끝인사가 나타나는데,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도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로 새해 덕담이 나타난다.

(10) 새해 새아침의 이러한 다짐이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시 한 번 6천만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87 전두환>

(11)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김영삼>

이상에서 살펴본 ‘도입, 전개, 마무리’는 일반적인 연설문에서 볼 수 있는 예시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각 부분별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3.3.의 분석 결과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3.2.2. 신년사의 전개 구조

본 절은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전개와 거시구조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석규(2001)는 ‘문장 단위 이상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층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였다. 즉 텍스트는 결속성으로 이루어진 명제들의 층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가 텍스트답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결속성에 있다. 3.1.에서도 서술하였듯, 결속성은 각 부분텍스트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의 계층구조는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 구성 요소를 ‘문장→문장군→단락→단락군→글 전체’²⁹⁾로 설정하기도 한다. 반면 이석규(2001)는 텍스트의 계층구조를 ‘명제→문장→문장군→형식단락→의미단락→글 전체’³⁰⁾로 보다 세분화하여 텍스트의 구조를 설명하기도 한다.

텍스트 계층구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객관적 표지 찾기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문장’과 ‘문단’에 대한 구분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장’과 ‘문단’의 경우에는 텍스트 내에서 ‘마침 문장부호’나 ‘들여쓰기’와 같은 유표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고, 한 문장 안에 여러 명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문장 보다 더 하위 단위인 ‘명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 명제의 덩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문장과 단락 사이에 ‘문장군’을 설정하기도 한다. 여러 개의 문장군이 모이면 단락이 형성된다. 단락의 경우에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유표적 단위의 단락을 ‘형식 단락’, 형식 단락이 모여 의미군을 이루는 것을 ‘의미단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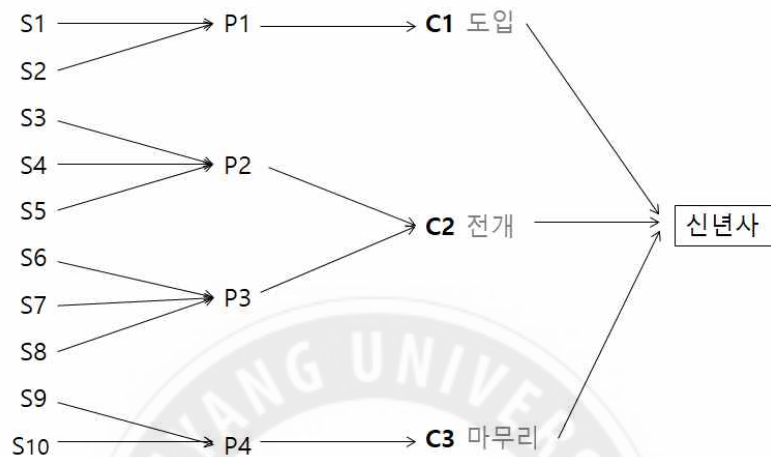
29) 김선경(2014)은 중국 정치 연설문의 중국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문장을 최소 단위로, 문장과 텍스트 사이에 중간 단위로 단락을 두고 문장-단락-텍스트를 분석 단위로 사용한다.

30) 이석규(2001)의 텍스트 계층구조

명제 → 문장 → 문장군 → 형식단락 → 의미단락 → 글 전체

(미시개념 ← → 거시개념)

본 연구에서는 신년사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자연 문장³¹⁾을 가장 하위 단위로 설정하고, 각 자연 문장을 S1³²⁾, S2, S3 … 으로 나타낸다.



[그림 6]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 분석

추출된 자연 **문장** S1, S2, S3 …은 [그림 6]과 같이 같은 명제의 덩이로 묶을 수 있는 **문장군**인 P1³³⁾, P2, P3 …로, P1, P2, P3 …는 다시 의미의 단락군인 **문단군**, C1³⁴⁾(도입), C2(전개), C3(마무리)로 묶어, 분석 단위를 $S_n \rightarrow P_n \rightarrow C_n$ 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대통령 신년사의 각 형태를 비교, 연구하면 대통령 신년사가 가진 구조적 특징과 각 신년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2019)까지 총 63편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필요에 따라 <표 7>과 같이 각 신년사에 기호를 붙이고자 한다. 1949년부터 70년간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은 총 11명이고, 시간 순서와 횟수에 따라 <표 7>³⁵⁾과 같은 기호를 설정한다.

31) 여기서 자연 문장이라 함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말한다.

32) S1의 S는 Sentence의 약자이다.

33) P1의 P는 Paragraph의 약자이다.

34) C1의 C는 Composition의 약자이다.

35) 본 연구는 각 신년사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나, 대통령 별 연설문의 비교 연구가 아니므로 신년사에 기호를 주어 분석하고자 한다.

<표 7> 대통령 신년사의 구별 기호

(1)	1949년 이승만	1-1	(33)	1986년 전두환	4-6
(2)	1950년 이승만	1-2	(34)	1987년 전두환	4-7
(3)	1952년 이승만	1-3	(35)	1989년 노태우	5-1
(4)	1953년 이승만	1-4	(36)	1990년 노태우	5-2
(5)	1954년 이승만	1-5	(37)	1991년 노태우	5-3
(6)	1955년 이승만	1-6	(38)	1992년 노태우	5-4
(7)	1956년 이승만	1-7	(39)	1994년 김영삼	6-1
(8)	1957년 이승만	1-8	(40)	1995년 김영삼	6-2
(9)	1958년 이승만	1-9	(41)	1996년 김영삼	6-3
(10)	1959년 이승만	1-10	(42)	1997년 김영삼	6-4
(11)	1964년 박정희	2-1	(43)	1998년 김영삼	6-5
(12)	1965년 박정희	2-2	(44)	1999년 김대중	7-1
(13)	1966년 박정희	2-3	(45)	2000년 김대중	7-2
(14)	1967년 박정희	2-4	(46)	2001년 김대중	7-3
(15)	1968년 박정희	2-5	(47)	2002년 김대중	7-4
(16)	1969년 박정희	2-6	(48)	2003년 김대중	7-5
(17)	1970년 박정희	2-7	(49)	2004년 노무현	8-1
(18)	1971년 박정희	2-8	(50)	2005년 노무현	8-2
(19)	1972년 박정희	2-9	(51)	2006년 노무현	8-3
(20)	1973년 박정희	2-10	(52)	2007년 노무현	8-4
(21)	1974년 박정희	2-11	(53)	2008년 노무현	8-5
(22)	1975년 박정희	2-12	(54)	2009년 이명박	9-1
(23)	1976년 박정희	2-13	(55)	2010년 이명박	9-2
(24)	1977년 박정희	2-14	(56)	2011년 이명박	9-3
(25)	1978년 박정희	2-15	(57)	2012년 이명박	9-4
(26)	1979년 박정희	2-16	(58)	2013년 이명박	9-5
(27)	1980년 최규하	3-1	(59)	2014년 박근혜	10-1
(28)	1981년 전두환	4-1	(60)	2015년 박근혜	10-2
(29)	1982년 전두환	4-2	(61)	2016년 박근혜	10-3
(30)	1983년 전두환	4-3	(62)	2018년 문재인	11-1

(31)	1984년 전두환	4-4	(63)	2019년 문재인	11-2
(32)	1985년 전두환	4-5			



3.3.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적 특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대통령 신년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 전개와 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 층위별 부분텍스트가 지닌 명제 구조와 분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구조를 알아보기로 한다.

3.3.1.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 양상

[2-8]³⁶⁾을 분석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S1 : 국민 여러분³⁷⁾
- S2 : 새 아침 밝음
- S3 : 국내외 동포, 민족 하느님 축복 기원
- S4 : 국민 여러분
- S5 : 3차경제개발 준비와 선거, 올해 국운 좌우
- S6 : 새로운 각오, 소회 말하고자
- S7 : 조국 근대화, 평화 통일 우리 목표
- S8 : 국내외 시련 계속될 것 예상
- S9 : 시련 징후, 주변국에서 나타나
- S10 : 미, 소, 중과 아시아, 시련 물결 시작돼
- S11 : 이런 변화, 국가 안보에 시련 던져
- S12 : 북, 적화통일 전쟁 일으킬 가능성 높아
- S13 : 이 시기, 위기 아님

36) 본 연구에서 Sn의 분석은 [2-8]과 [7-1]만을 다룬다. 그 이유는 신년사의 길이가 길어(신년사 평균 Sn은 91개, <표 8> 참고)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따르며, [2-8]은 신년사의 구조가 명확히 잡히기 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7-1]은 신년사의 구조가 체계를 잡은 이후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시로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37) <표 6>에서와 같이 청자 부름말의 경우 ‘국민 여러분’의 앞에 ‘친애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등과 같은 꾸밈말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Sn으로 나타낼 때는 요약물 나타내므로 꾸밈말은 제외한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같은 청자 부름말의 경우, 하나의 문장으로 독립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저는…’과 같이 하나의 문장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지는 새로운 단락이나, 주제가 시작되는 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Sn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S14 :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S15 : 문제는 힘, 국력에 달림
S16 : 국력을 길러야 일어섬
S17 : 냉혹한 생존경쟁 시대 국력 길러야
S18 : 시련 극복 우방 지원 협력 중요
S19 : 우선 국민 결의, 단결로 국력 길러야
S20 : 국군전투력 강화, 각국과 실리외교 전개해야
S21 : 평화 지향, 국방외교 노력, 경제건설 힘써야
S22 : 경제 건설, 국력 기초
S23 : 민주, 공산의 대결, 번영 복지로 승패
S24 : 그간 성과 토대, 완전 자립경제 지속할
S25 : 국제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 산업구조 개선
S26 : 고속도로망 완성, 4대강 개발, 지방도시 개발
S27 : 경제력, 농어촌 집중할 단계
S28 : 농어민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노력
S29 : 민간기업 체질개선,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S30 : 우방과 경제 협력 추진할 것
S31 : 경제 혜택 골고루, 문화 융성 노력할 것
S32 : 문화 한국 구축, 새 전통 수립되고 있어
S33 : 체육 분야 능력 개발, 예술 활동 살어나
S34 : 선조들의 문예부흥 이어, 명예 드높일 것
S35 : 국민 여러분
S36 : 경제 자립, 역사 과업, 진전 궤도 올라섬
S37 : 남은 문제, 일치단결과 분발
S38 : 중단 없는 전진, 시련 극복, 민족의 활로
S39 : 국민 생활 태도, 관습, 생산적으로 전환
S40 : 금년 실시 두 차례 선거 질서 속 치러야
S41 : 선거, 민주 승리로 매듭지어야
S42 : 헌정사 빛나는 선거 되도록 다짐
S43 : 중단 없는 전진의 해 되게 할 것
S44 : 국민 노고 치하, 새해 인사드림
S45 : 새해 복 많이 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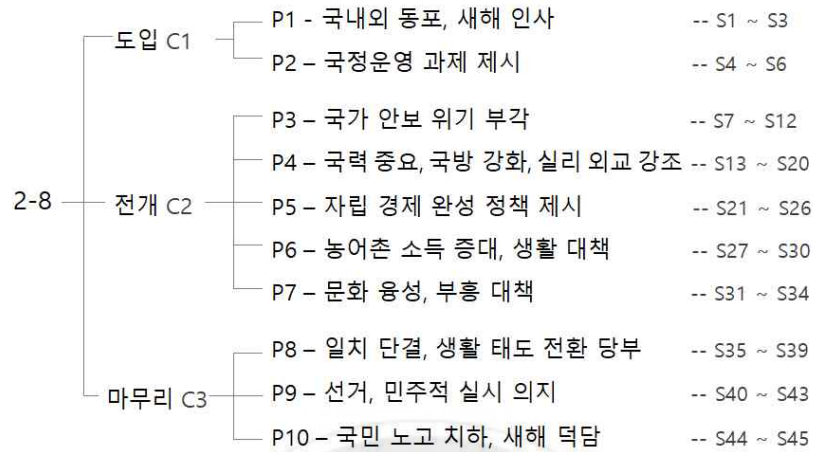
[2-8]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사이다. [2-8]을 문장 단위인 Sn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2-8]은 총 4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연설문의 도입부분은 청자 호칭으로 시작되는데, 대통령 신년사에도 S1과 같이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칭 표지가 나타난다. 이 표지는 S4와 S35에서도 나오는데, 화자의 이야기나 논점이 크게 바뀌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S4는 인사 이후, 국정 운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S35는 문화융성에 관한 주제에서 국민의 일치단결과 분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S1, S2, S3은 국민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가, S4, S5, S6은 국정운영 과제를 제시한다. 여기까지가 [2-8]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S7에서 S12까지 화자는 국가 안보 위기를 부각한다. 국내외에서 부는 시련과 북한의 전쟁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S13에서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며, 우리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력이 중요하며, 국방력 강화와 실리 외교를 강조한다. S21에서는 국력은 바로 경제적 힘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외국의 도움이 아닌, 자립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 S26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생활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S27부터 시작된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이 농어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농어촌의 생활 향상이 곧 국민 생활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제 발전은 다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곧 문화 융성 정책으로, S34까지 이어진다. 여기까지가 [2-8]의 전개부분이다.

마무리는 S35의 청자 호칭으로 시작된다. S36부터 앞에서 제시한 발전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일치단결과 생활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S40부터는 그해 이루어지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S44에서 국민의 노고를 치하하고, S45에서 새해 덕담을 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 한다. 이것을 분석틀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2-8]의 구조 분석

[2-8]의 도입은 인사와 국정운영 과제로, 전개는 통일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는 국민에게 전하는 당부와 그 해에 이루어지는 선거, 새해 덕담으로 끝맺는다.

이번에는 [7-1]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S1 : 국민 여러분
- S2 : 모두 행복, 희망찬 새 출발 하길
- S3 : 작년 파산위기 나라 구하고자 전력
- S4 : 엄청난 고통 불구 국민, 참고 동참
- S5 : 마침내 환란 이기고, 경제 성장
- S6 : 그러나 불경기, 실업 고통 줄어든 것 아님
- S7 : 이제 앞날 희망 갖게 됨
- S8 : 모든 것 국민 협력, 인내, 각오, 노력 소산
- S9 : 국민 여러분
- S10 : 작년 절망, 불안 속에 출발
- S11 : 민주주의 실현한 우리 국민, 좌절 없음
- S12 : 작년 국민 힘으로 민주정권 들어섬
- S13 : 국민 스스로 민주정권 쟁취, 존경과 찬사

S14 : 영광은 고난 속에서 시작
S15 : 전례 없는 국난 위기와 출발
S16 : 국민의 열정, 각오로 슬기롭게 극복
S17 :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동 깃발 극복함
S18 : 실직, 경기침체 고통, 협력 동참 이겨냄
S19 : 금 모으기, 실직가정 돕기, 수재민구호
S20 : 금융, 기업, 공공, 노동, 4대개혁에 참여
S21 : 경제 위기 극복 모범 보였던 국내외 평가
S22 : 낙관 이르지만 시련의 해는 갔음
S23 : 저는 국민 여러분이 고맙고 자랑스러움
S24 : 국민 여러분
S25 : 대북정책 안정되고 성과 내고 있음
S26 : 안보, 화해 병행 추진만이 적절한 대북정책임
S27 : 북 도발하지만 남북 교류시작, 변화 조짐
S28 : 북 도발 대비, 우방국과 공조할 것
S29 : 국민 여러분
S30 : 여러분의 큰 관심사, 경제 성장할 것인지
S31 :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음
S32 : 98년은 경제개혁 큰 테두리 마무리할 것
S33 : 올해는 플러스 성장, 도약의 단계로 갈 것
S34 : 이런 예견 많은 사람 낙관이라 비판
S35 :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 없어
S36 : 국민의 애국심, 근면성, 능력, 신뢰해
S37 : 6.25폐허 위 일어선 저력을 알기 때문
S38 : 국민 여러분
S39 : 다시 도약할 가능성 많음
S40 :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단결, 노력해야
S41 : 우리는 해낼 수 있음
S42 : 이 보다 힘든 시련도 극복한 민족임
S43 : 지금 못 할 이유 없음
S44 : 실패한 빗더미 나라 후손, 물려줄 수 없어
S45 : 21C 성공적 개척하려면

S46 : 민주주의 시장경제 병행 발전시켜야
 S47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노동문화 공동운명체 정착시켜야
 S48 : 생산적 복지제도 필요
 S49 : 남북관계도 안보, 화해, 협력 추진 확고히
 S50 : 세계를 받아들이고 진출해야
 S51 : 21C는 열린 세계화시대
 S52 : 21C는 최대 혁명기
 S53 : 세계 하나 되는 무한경쟁 시대
 S54 : 살아남으려면 국민적 단결, 협력 필요
 S55 : 지역 이기주의, 망국의 길
 S56 : 지역감정 조장 세력, 준엄한 심판 내려야
 S57 : 민간인 공무원 힘 합쳐 나라 바로 잡아야
 S58 : 공무원은 개혁대상 아님
 S59 : 개혁의 주체임
 S60 : 정부, 행정 정치적 이용, 공무원 인사 파행 없어야
 S61 : 국민 단결, 협력의 제2의 건국운동 할 것
 S62 : 민관 하나 되어 국민적 대전진할 것
 S63 : 정치, 당 초월해야, 국민운동 성공
 S64 : 제2건국운동으로 일어서면 못할 것도 없어
 S65 : 성공이 우리 기다릴 것
 S66 : 저는 자신을 가짐
 S67 : 국민과 함께라면 암흑의 터널 빠져나갈 것
 S68 : 터널 끝에는 희망의 21C가 기다릴 것
 S69 : 국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함
 S70 :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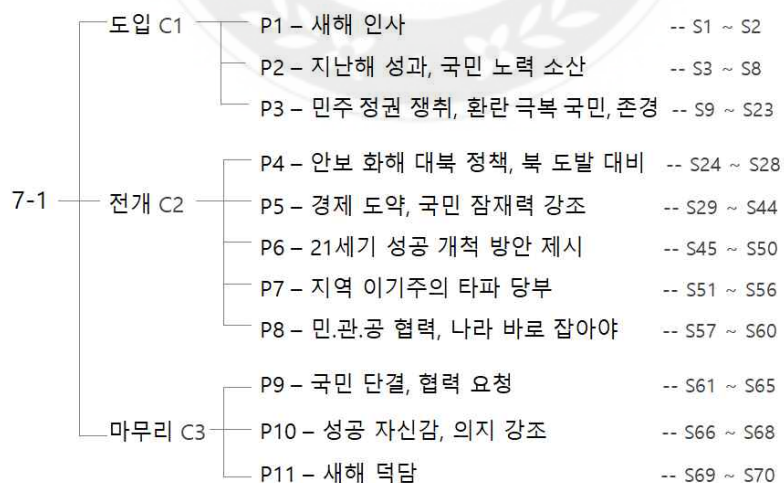
[7-1]은 1999년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이다. 총 문장은 70개이고, 이것을 문장 단
 위인 S_n 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위와 같다. [2-8]과 같이 S1에서 청자 호칭이 등장하
 고, 이후에도 청자 호칭은 S9, S24, S29, S38 이렇게 5번이 나타난다. 역시 논점이 전
 환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언어 표지이다. S1, S2는 새해 인사를, S3부터는 지난해 성
 과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다. 당시에는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조금씩 회복 되는 상황이었다. 화자는 S8에서 경제 회복이 국민 노력의 소산이라며 청자 호칭 후,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낸다. [2-8]이 국가 위기를 부각하여 청자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7-1]은 청자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나타내어 주목을 끄는 전략을 사용한다. S23까지가 [7-1]의 도입에 해당된다.

전개는 S24의 청자 호칭부터 시작된다. S24는 화자가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 전환을 위해 사용된다. [2-8]처럼 북한의 위기가 강하게 부각 되지는 않지만 S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하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S26에서 드러낸다. S29부터는 경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비교적 긴 문장으로 이어진다. 경제 환란에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마당에 화자는 청자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자극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S36에서 S43까지 강조한다. S45부터는 21세기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단결과 협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민과 정부, 공무원이 모두 힘을 합쳐 개혁하고 노력해야 가능함을 S57부터 S60까지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S61에서 S65까지 국민의 단결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S66부터 이야기 한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 강조했던 국민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으로 S69와 같이 새해 덕담으로 [7-1]이 마무리 된다.

[7-1]의 도입은 새해 인사와 지난해 성과로, 전개는 통일 국방, 경제, 정치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는 성공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협조 요청, 새해 덕담으로 끝맺는다. [7-1]의 구조를 분석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7-1]의 구조 분석

대통령 신년사 [2-8]과 [7-1]을 통해 구조 분석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총 63편의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하여 Sn과 Pn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대통령 신년사의 Sn과 Pn

		Sn	Pn			Sn	Pn
(1)	1-1	8	6	(33)	4-6	211	16
(2)	1-2	16	7	(34)	4-7	16	5
(3)	1-3	2	2	(35)	5-1	87	9
(4)	1-4	16	6	(36)	5-2	177	14
(5)	1-5	26	5	(37)	5-3	119	9
(6)	1-6	7	5	(38)	5-4	123	9
(7)	1-7	7	7	(39)	6-1	157	15
(8)	1-8	9	6	(40)	6-2	137	10
(9)	1-9	18	6	(41)	6-3	139	14
(10)	1-10	5	3	(42)	6-4	143	10
(11)	2-1	32	7	(43)	6-5	17	7
(12)	2-2	25	7	(44)	7-1	70	10
(13)	2-3	52	8	(45)	7-2	176	18
(14)	2-4	42	7	(46)	7-3	115	13
(15)	2-5	24	5	(47)	7-4	107	11
(16)	2-6	36	7	(48)	7-5	23	7
(17)	2-7	31	9	(49)	8-1	142	11
(18)	2-8	45	10	(50)	8-2	137	12
(19)	2-9	39	8	(51)	8-3	168	13
(20)	2-10	48	8	(52)	8-4	968	18
(21)	2-11	61	7	(53)	8-5	15	7
(22)	2-12	50	9	(54)	9-1	180	12
(23)	2-13	48	7	(55)	9-2	141	11
(24)	2-14	40	9	(56)	9-3	176	10
(25)	2-15	31	7	(57)	9-4	148	13
(26)	2-16	30	7	(58)	9-5	18	7

(27)	3-1	82	7	(59)	10-1	89	10
(28)	4-1	141	12	(60)	10-2	134	14
(29)	4-2	44	7	(61)	10-3	154	11
(30)	4-3	33	7	(62)	11-1	204	10
(31)	4-4	14	5	(63)	11-2	197	13
(32)	4-5	14	5	평균		91.49	9

<표 8>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는 신년사에 대한 개념과 구조가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년사 텍스트의 길이가 길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꾸준히 Sn의 수가 증가하여 [8-4]의 경우에는 하나의 신년사 텍스트가 968개의 Sn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1-3]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신년사로 Sn이 2개로 이루어졌다. 전쟁 중 발표된 [1-3]은 신년 인사도 국정 과제도 없이 전쟁 상황과 힘을 내어 적을 물리차자는 소망만이 담긴 신년사이다. 반면 길이가 가장 길었던 [8-4]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로, 글을 짧고 쉽게 쓰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난 신년사이다. 편차가 크지만 대통령 신년사의 Sn은 평균 91개라고 할 수 있다.

Sn이 높은 편차를 보였던 반면, 이들을 문단으로 묶어 분류한 Pn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한 규칙을 보인다. 역시 전쟁 중이었던 [1-3]을 제외하고 Pn은 최하 3개에서 최대 18개로 이루어졌는데, 평균은 9개로 조사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 발전되고 규모가 커져 각 정책이 세분화 되어 제시된 까닭에 Pn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3.2.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특징

지금부터는 Pn을 3단계로 나누고 세부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 구조를 확인하도록 한다.

1) 도입

63편의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① 새해 인사 ② 지난해 회고 ③ 국민 노력 감사 ④ 국정과제 제시 ⑤ 각오와 다짐 ⑥ 자기반성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9> 대통령 신년사 도입 구성

		새해 인사	지난해 회고	국민 노력감사	국정과제 제시	각오 다짐	자기반성	기타
1	1-1	○						
2	1-2	○						
3	1-3		○					
4	1-4		○					
5	1-5	○						
6	1-6	○				○		○
7	1-7	○	○					
8	1-8	○						
9	1-9	○		○				
10	1-10	○						
11	2-1	○	○	○	○			
12	2-2	○	○	○	○			
13	2-3	○	○			○		
14	2-4	○	○					
15	2-5	○	○	○				
16	2-6	○			○			
17	2-7	○				○		
18	2-8	○			○			
19	2-9	○			○	○		
20	2-10	○	○			○		
21	2-11	○	○	○		○		
22	2-12	○	○	○				
23	2-13	○	○	○				
24	2-14	○	○	○				
25	2-15	○	○	○				
26	2-16	○	○					
27	3-1	○	○	○				
28	4-1	○			○			
29	4-2	○	○	○				
30	4-3	○	○	○				

31	4-4	○	○					○
32	4-5	○	○					
33	4-6			○	○	○		
34	4-7	○	○	○				
35	5-1	○	○	○		○		
36	5-2	○				○		○
37	5-3	○	○		○			
38	5-4	○	○					
39	6-1	○	○	○	○			
40	6-2	○	○	○				
41	6-3	○				○		
42	6-4	○	○	○		○		
43	6-5	○	○				○	
44	7-1	○	○	○				
45	7-2	○			○	○		○
46	7-3	○	○		○			
47	7-4	○			○	○	○	
48	7-5	○	○	○				
49	8-1	○	○	○	○			
50	8-2	○			○			
51	8-3	○	○	○	○			
52	8-4	○	○					
53	8-5	○						
54	9-1	○			○			
55	9-2	○	○	○				
56	9-3	○	○			○		
57	9-4	○	○	○				
58	9-5	○	○					
59	10-1	○		○	○			
60	10-2	○	○	○	○		○	
61	10-3	○						
62	11-1			○	○			
63	11-2		○	○				
합계		58	40	28	19	14	3	4

① 새해 인사

도입은 청자 호칭으로 시작되며, 이후 새해 인사가 이어진다.

(12)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3-1], 1980 최규하>

(13)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7백만 해외 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8-5], 2008 노무현>

‘새해 인사’는 (12)와 같이 국민에게만 새해 인사를 하는 경우와 (13)에서처럼 해외 동포나 북녘 동포까지 아우르는 인사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새해 인사는 5편을 제외하고 모든 신년사에서 볼 수 있었는데, [1-3]과 [1-4]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4-6]과 [11-1], [11-2]에서는 호칭 이후, 신년 인사 없이 바로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까닭에 새해 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지난해 회고

도입 부분에서 청자 호칭과 새해 인사가 끝나면 주로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나타난다.

(14) 문민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고, 군 인사를 쇄신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치개혁 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은 나라의 모습을 바탕부터 바꾸었습니다. <[6-2], 1995 김영삼>

(15)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노사 관계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노동법도 개정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미소금융·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9-3], 2011 이명박>

(14)처럼 지난해 실시한 정책의 성과나, (15)처럼 국가의 발전이나 위상을 나타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성과’는 (14)에서처럼 “~실시했습니다.~, ~ 단행했습니다.”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술어 표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16)처럼 국제 사회 불안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대내외 환경을 부각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16) 81년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폴란드사태를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간의 전쟁과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피격 사망으로 상징되는 불안한 중동정세, 좌석세력간의 격화된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남미사태, 그리고 선진 공업국가들의 유례를 보기 드문 경제침체와 각 국가 간의 무역마찰 등은 지난해가 보여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구체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4-2], 1982 전두환>

(16)과 같은 서술은 결국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국민의 노력과 인내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14), (15)와 같이 지난해의 성과도 결국 국민의 노고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든다.

‘지난해 회고’는 63편의 대통령 신년사 중 총 40편의 신년사에서 나타난다.

③ 국민 노력 감사

도입 부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타는 내용은 ‘국민 노력에 대한 감사’이다. 이는 주로 ‘지난해 성과’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날 때 그 공을 국민에게 돌리거나, 어려움을 견딘 국민의 노력을 칭찬하기 위해 서술된다.

도입 부분의 ‘국민 노력 감사’는 양태중(1993)이 주장한 연설문의 틀머리에서 ‘청중의 호감을 사고 관심을 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청자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노력한 국민을 칭찬하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유대감과 호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Brown and Levinson(1987)은 ‘칭찬하기와 같은 타인과의 유대감 표현은 적극적인 공손 전략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³⁸⁾으로 분류한다.

38) 이승연·김은호(2014: 116)의 언어정보, 재인용

(17) 나는 오늘 이 새해 아침을 맞이하며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와 근로자, 그리고 일선 장병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2-11], 1974 박정희>

(18)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11-2], 2019 문재인>

(17)은 유신 과업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18)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다. 국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총 28편의 신년사 도입 부분에 나타난다.

④ 국정과제 제시

‘국정과제 제시’는 총 19편으로, 전개 부분에서 제시 될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그 예는 (19)와 (20)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9)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1], 2009 이명박>

(20)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10-1], 2014 박근혜>

(19)와 (20)에서처럼 도입 부분에 간략한 국정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청자는 화자가 전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국정 과제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각오와 다짐

(21)과 (22)는 도입 부분에서 드러난 각오와 다짐의 예이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은 마무리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각오와 다짐은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청자인 국민과 함께 목표를 이루자는 내용이 담긴다.

(21)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믿고 협동하여, 국민 총화로써 조국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을 세워야 하겠다는 결의를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2-11], 1974 박정희>

(22) 우리의 시대적 과제도 미래로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21세기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새 세기에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역량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투철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6-4], 1997 김영삼>

도입에서 각오와 다짐은 총 14편에서 나타난다.

⑥ 자기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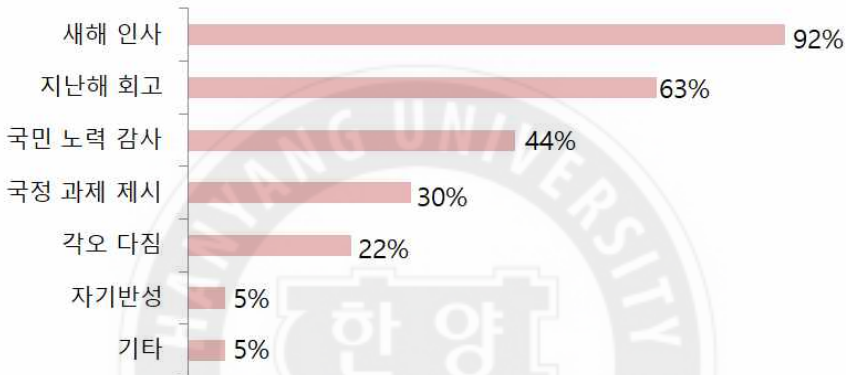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통령 신년사에 화자가 과오나 잘못된 점에 관해 반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총 3편의 신년사에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는데, (23)은 그 예이다.

(23)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중략)...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7-4], 2002 김대중>

마지막으로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1-6]에서 해외 원조를 해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드러난 1955년의 신년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4-4] 1984년 신년사, 1990년 [5-2]이다. [5-2]는 주로 전개 부분에서 나타나는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에 대

한 불안을 강조'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라는 세계적인 사건이 있는 뒤라, 1990년 신년사의 도입 부분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 도입 부분에서의 명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총 63편의 대통령 신년사 중, 92%의 신년사에서 '새해 인사'가, 63%는 '지난해 회고'가, 44%는 '국민 노력에 대한 감사'가, 30%는 '국정 과제 제시'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도입 부분의 명제 내용

2) 전개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부분은 그해 국정 운영의 방향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전개 부분에서는 ① 통일·안보·국방 ② 경제 ③ 사회 ④ 정치 ⑤ 외교 ⑥ 문화 6개 분야에 관한 주제가 다뤄진다. 각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대통령 신년사 전개 구성

		현재 상황	통일 안보 국방	경제	사 회							정 치	외 교	문 화	기 타
					생 활	노 동	과 학	환 경	복 지	교 육	기 타				
1	1-1		○	○											

2	1-2	○	○	○	○							○	○		
3	1-3	○	○												
4	1-4	○	○	○											
5	1-5	○	○												
6	1-6	○	○	○											
7	1-7	○	○	○											
8	1-8	○	○	○											
9	1-9	○	○	○									○		
10	1-10	○	○												
11	2-1		○	○	○							○			
12	2-2	○	○	○											
13	2-3	○	○	○									○		
14	2-4	○	○	○									○		
15	2-5	○	○	○											
16	2-6		○	○											
17	2-7		○	○	○							○		○	
18	2-8	○	○	○	○								○	○	
19	2-9	○	○	○	○		○					○		○	
20	2-10	○	○	○											
21	2-11	○	○												
22	2-12	○	○	○	○										
23	2-13	○	○	○											
24	2-14	○	○	○											
25	2-15	○	○	○				○						○	
26	2-16	○	○	○				○				○		○	
27	3-1	○	○	○	○							○			
28	4-1		○	○	○		○		○	○			○	○	
29	4-2	○		○					○					○	
30	4-3		○	○	○										
31	4-4		○	○											
32	4-5	○		○											
33	4-6		○	○	○		○		○	○		○	○	○	
34	4-7		○	○											

35	5-1			○	○	○	○	○		○	○		○	○	○	
36	5-2	○		○		○	○	○		○	○		○		○	
37	5-3			○	○	○	○	○	○	○			○	○		○
38	5-4			○	○	○	○	○		○			○			
39	6-1	○		○		○	○	○	○		○		○	○		
40	6-2	○		○		○		○			○		○	○	○	
41	6-3	○		○		○		○		○	○		○	○		
42	6-4			○	○	○	○			○			○			
43	6-5	○			○								○			
44	7-1			○	○		○						○			
45	7-2			○	○	○		○		○	○		○			
46	7-3			○	○	○	○	○		○			○			○
47	7-4			○	○	○				○	○		○		○	
48	7-5			○	○	○										
49	8-1	○		○		○	○		○		○		○			
50	8-2				○	○	○		○	○	○	○	○		○	
51	8-3				○	○	○	○		○	○		○		○	○
52	8-4	○		○		○	○			○	○		○	○		○
53	8-5				○											
54	9-1	○		○		○	○	○	○	○	○	○		○	○	
55	9-2	○		○		○	○		○		○			○		
56	9-3	○		○		○	○	○	○	○	○	○		○		
57	9-4	○		○		○		○	○	○	○		○			
58	9-5			○	○									○		
59	10-1			○		○				○	○					
60	10-2			○		○	○			○	○				○	
61	10-3	○		○		○							○			
62	11-1			○		○	○			○	○			○	○	
63	11-2			○		○	○	○	○	○	○		○		○	
합계		37	57	59	34	19	17	11	21	23	23	27	18	18	4	
					39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에서 전개로 넘어가는 첫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설

명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개 부분의 핵심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 국내외의 현재 상황이나 국가의 현재 상태를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전개 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게 된다. 도입 부분에서 ‘지난해 회고’가 나타났다면, 전개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이 나타난다.

(24)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는 군사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1년 전보다 많이 진전된 자리에 처해서 FOA와 UNKRA에서 상당한 재정으로 우리 구매처와 은행을 통해서 주문하는 대로 물산이 수입되고 있는 중이며, 군사상으로는 우리 육군 20사단이 완성되어 있는 외에 10사단을 예비병으로 훈련 조직하고 있는 중이고, 해군 공군도 상당히 확장되어 가는 중이니, 우리 형편에 앉아서 이것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용사 한 사람이 적군(敵軍) 얼마씩을 담당할 것은 지나간 경력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 1955 이승만>

(24)는 1955년의 신년사이다. 전쟁 이후 한국은 해외 원조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과 군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24)에서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늘고, 군이 재정비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다.

(25) 지금 국제정세는 1970년대에 지향되어 오던 강대국 간의 평화공존 분위기가 크게 후퇴하고, 또 동서긴장 완화 면에서도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국제정세는 비단 정치면, 경제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 1980 최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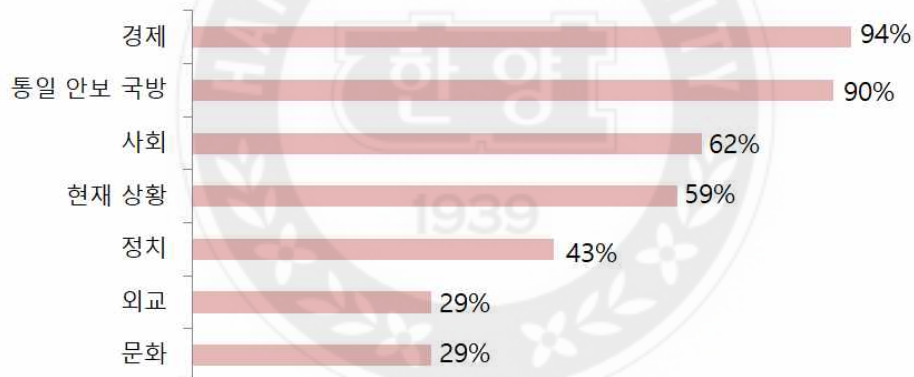
(25)는 1980년 신년사의 첫 전개 부분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현재 상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현재 상황’으로 전개 부분을 시작하는 대통령 신년사는 총 37편으로 59%의 신년사에서 나타난다. 도입 부분의 ‘지난해 회고’가 40편, 63% 신년사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24)처럼 국가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과, (25)처럼 국내외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26)은 2010년 신년사의 전개 부분이다.

(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있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2], 2010 이명박>

단락이 바뀔을 표지하는 청자 호칭, ㉠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전개 부분의 시작은 (26)처럼 국가의 대내외적 ‘현재 상황’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거나, 바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0]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

대통령 신년사에 핵심에 해당하는 전개 부분은 대통령이 1년간 펼치게 될 국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주로 ①통일·안보·국방 ②경제 ③사회 ④정치 ⑤외교 ⑥문화 6개 분야에 걸쳐 서술되는데, [그림 10]에서와 같이 가장 많은 비율로 거론되는 주제는 ‘경제’ 분야와 ‘통일·안보·국방’ 분야이다. 각각 94%, 90%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경제’와 ‘통일·안보·국방’ 분야의 정책에 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점적인 정책과 그 방향성은 ‘경제’와 ‘통일·안보·국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는 사회 분야로, 62%의 신년사에서 사회 분야의

정책과 그 과제가 제시된다. <표 10>에서 분포를 보면 1950~1960년대의 사회 정책에 비해 현재로 올수록 사회 분야 정책이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분야는 생활> 교육> 복지> 노동> 과학> 환경 순서의 비중을 보인다. 사회 분야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인 ‘생활’과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교육’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국가의 사회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의 관심은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경제’와 ‘통일·안보·국방’ 분야와 ‘사회’ 분야 다음으로 ‘정치’> ‘외교, 문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각각 43%, 29%의 신년사에 나타났다. ‘정치’³⁹⁾ 문제 역시 국가 운영과 정책에 관한 설계에서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다.

3) 마무리

대통령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면 ① 국민 협조 요청 ② 새해 덕담 ③ 대통령 소임 의지 ④ 국가 발전 기원 ⑤ 국민 잠재력 강조 ⑥ 국민 노력 감사 ⑦ 지지 호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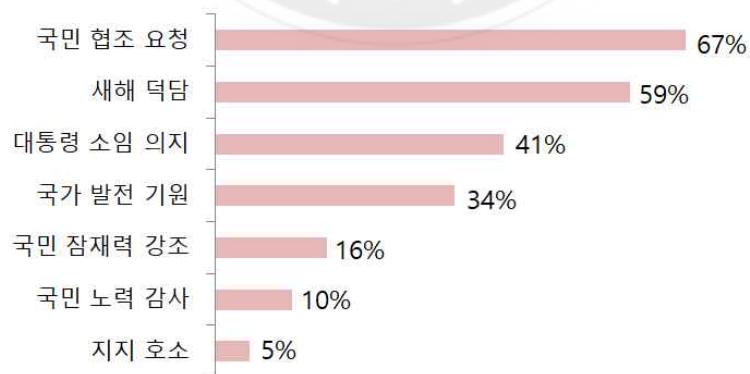
		새해 덕담	국민 노력 감사	국가 발전 기원	국민 잠재력 강조	국민 협조 요청	지지 호소	대통령 소임 의지
1	1-1			○				
2	1-2			○				
3	1-3			○				
4	1-4			○				
5	1-5			○				
6	1-6	○						
7	1-7	○		○				
8	1-8	○	○					
9	1-9	○						
10	1-10	○						
11	2-1	○				○		
12	2-2	○				○		

39) 전개 부분의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은 육아, 고령화, 청년 일자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13	2-3	○		○				
14	2-4	○				○		
15	2-5	○				○		
16	2-6	○				○		
17	2-7	○	○			○		
18	2-8	○				○		○
19	2-9		○			○		
20	2-10	○	○			○		
21	2-11	○		○		○		
22	2-12		○	○		○		
23	2-13		○	○		○		
24	2-14	○				○		○
25	2-15	○		○		○		
26	2-16	○			○	○		
27	3-1					○	○	
28	4-1					○		
29	4-2	○				○		
30	4-3	○			○	○		
31	4-4	○				○		
32	4-5	○				○		○
33	4-6	○				○		
34	4-7	○		○		○		
35	5-1					○		
36	5-2	○				○		○
37	5-3					○		○
38	5-4					○		○
39	6-1	○			○	○		
40	6-2			○		○		○
41	6-3			○		○		○
42	6-4				○	○		○
43	6-5	○				○		○
44	7-1	○			○			○
45	7-2	○		○			○	○
46	7-3	○				○		
47	7-4	○			○	○		○

48	7-5	○					○	○
49	8-1			○				○
50	8-2				○	○		○
51	8-3				○			
52	8-4	○						○
53	8-5	○		○	○			○
54	9-1					○		
55	9-2					○		○
56	9-3	○				○		○
57	9-4	○			○	○		○
58	9-5	○		○				
59	10-1			○		○		○
60	10-2			○		○		○
61	10-3					○		○
62	11-1			○				○
63	11-2			○				○
합계		37	6	22	10	42	3	26

<표 11>을 통해 각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명제 내용을 비율로 나타내면 [그림 11]와 같다. 63편의 신년사 중 67%에서 ‘국민 협조 요청’이 나타며, ‘새해 덕담’이 59%, ‘대통령 소임 의지’는 41%, ‘국가 발전 기원’이 34%, ‘국민 잠재력 강조’가 16%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마무리 부분의 명제 내용

① 국민 협조 요청

전개 부분에서 화자는 1년간 추진하게 될 국가 운영 방향과 정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이 되면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7) 미래란 흔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희망의 세계라고 합니다만, 이 길도 아무런 준비와 가꾸는 정성이 없이는 저절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길을 따라 정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2천 년대를 향한 우리 민족적 단합과 대행진이 더욱 힘차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와 후세역사에 값진 유산을 남기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전진해 나갈 것을 다 같이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4-6], 1986 전두환>

(28)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본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10-2], 2015 박근혜>

(27)과 (28)은 ‘국민 협조 요청’의 예이다. (27)은 민족적 단합과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힘을 모아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28)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협조 요청은 63편의 대통령 신년사 중 42편에 나타나며, 이는 67%의 비율이다.

② 새해 덕담

마무리 부분에서 ‘국민 협조 요청’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내용은 59%의 비율을 보인 ‘새해 덕담’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에서 ‘새해 인사’가 나타나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새해 덕담을 하며 끝을 맺는 경우가 37편이었다. (29)와 (30)은 마무리 부분의 ‘새해 덕담’의 예이다.

(29) 우리가 앞으로 다 합해서 더 잘해 나갈수록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더욱 복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니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복을 많이 받도록 축

하하는 바입니다. <[1-9], 1958 이승만>

(30) 여러분 가정 모두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9-5], 2013 이명박>

③ 대통령 소임 의지

(31) 저는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를 통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6-3], 1996 김영삼>

(32) 새해가 국가적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 2008 노무현>

(31)과 (32)는 대통령 소임 의지가 드러난 부분의 예이다. (31)의 화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화자의 강한 의지는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다. 반면 (32)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발표된 신년사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대통령 소임 의지’가 나타난 신년사는 41%, 26편이다.

④ 국가 발전 기원

‘국가 발전 기원’은 다음과 같은 예로 나타난다.

(33) 자유를 사랑하고 독립권을 애호하는 우리 일반 동포는 민주정체의 기초를 공고히 세워서 동양에 한 모범적인 민주국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신성한 국가를 이룰 것이니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금년에 성취할 것을 감사하며 새해에 성공할 것을 미리 축하합니다. <[1-1], 1949 이승만>

(34) 끝으로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가호 아래, 조국의 근대화와 국토통일 이 하루속히 이룩될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3], 1966 박정희>

(33)의 화자는 우리나라가 동양의 모범적 민주국, 신성한 자유국이 될 것을 확신하고 미리 축하하자는 말로 국가 발전을 기원하며, (34)는 조국의 근대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국가 발전 기원’은 해당 신년사가 발표 되는 시기의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광복을 이룬 1950년대는 민주와 자유의 기원을, 1960년대는 조국 근대화를, 1970년대는 경제적 발전을, 1980년대는 민주화의 기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 발전 기원’의 내용은 총 22편, 34%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타난다.

⑤ 국민 잠재력 강조

‘국민 잠재력 강조’는 10편, 16%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타난다. 단기간 내에 고속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내어줄 것을 강조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기 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다.

(35) 우리는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고, 또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온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뭉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면 이 난국도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3-1], 1980 최규하>

(36)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 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7-4], 2002 김대중>

(35)는 고난 극복에 대한 잠재력을, (36)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문화적 감각에 관한 잠재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⑥ 국민 노력 감사

도입 부분에 등장했던 ‘국민 노력 감사’가 마무리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도입 부분에서는 44%의 신년사에 나타났던 반면, 마무리 부분에서는 10%의 신년사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⑦ 지지 호소는 (37)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5%의 신년사에서 볼 수 있다.

(37)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협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

며, 계속되는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7-5], 2003 김대중>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통령 신년사의 명제 구성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대통령 신년사 명제 구성

도 입	①새해 인사 ②지난해 회고 ③국민 노력 감사 ④국정과제 제시 ⑤각오와 다짐 ⑥자기반성
전 개	①현재 상황 ②통일·안보·국방 정책 ③경제 정책 ④사회 정책 ⑤정치 정책 ⑥외교 정책 ⑦문화 정책
마무리	①국민 협조 요청 ②새해 덕담 ③대통령 소임 의지 ④국가 발전 기원 ⑤국민 잠재력 강조 ⑥국민 노력 감사 ⑦지지 호소

위와 같은 대통령 신년사의 명제 구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형태를 구조화 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 구조

3.4. 요약

이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 구조와 각 명제 구조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층위별로 일정한 기능을 갖는 부분텍스트의 묶음을 문장→문단→문단군의 순서인 $S_n \rightarrow P_n \rightarrow C_n$ 로 나누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 신년사를 ‘도입, 전개, 마무리’ 3단 구성으로 분류, 각 명제 구조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은 ① 새해 인사 ② 지난해 회고 ③ 국민 노력 감사 ④ 국정 과제 제시의 순서로, ‘전개’는 ① 현재 상황과 함께 6가지 국정 운영 과제인 ② 통일·안보·국방 ③ 경제 ④ 사회 ⑤ 정치 ⑥ 외교, 문화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① 국민 협조 요청 ② 대통령 소임 의지 ③ 국가 발전 기원 ④ 새해 덕담의 순서로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연설문의 서론과 결론은 청자의 ‘호감을 사는 감정 수단’을 사용하는데, 대통령 신년사의 경우에는 도입에서 ‘국민 노력 감사’를 통해, 마무리에서 ‘대통령 소임 의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형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12]와 같다.

제4장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특징과 시기별 양상

4.1. 서언

본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전개와 기능, 어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장이 공시적 관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4장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년사는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여타의 연설문과는 달리, 시간의 연속성과 정기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신년사는 일회적 언어장치의 결합이 아니라,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는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언어실현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 그 특성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생산 당시 구성원들의 의식은 물론,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신년사의 어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언어 및 의사소통 체계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를 위해 <표 13>과 같이 10년 단위의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 신년사를 나누고자 한다.

<표 13> 대통령 신년사의 시기별 구분

	시 기	기 간	신년사 횟수	해당 신년사 기호
(1)	1950년대	1949년~1959년	10회	1-1 ~ 1-10
(2)	1960년대	1960년~1969년	6회	2-1 ~ 2-6
(3)	1970년대	1970년~1979년	10회	2-7 ~ 2-16
(4)	1980년대	1980년~1989년	9회	3-1 ~ 5-1
(5)	1990년대	1990년~1999년	9회	5-2 ~ 7-1
(6)	2000년대	2000년~2009년	10회	7-2 ~ 9-1
(7)	2010년대	2010년~2019년	9회	9-2 ~ 11-2

<표 13>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1948년 이후 2019년까지, 10년 단위, 7

개의 기간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시기별 신년사의 편수는 1960년대 6편을 제외하고 9~10편의 신년사로 이루어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첫째, 신년사 텍스트의 ‘텍스트 전개와 양상’을 살펴본다. ‘시기별 전개 양상’은 3장에서 연구된 신년사의 공통 구조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과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양상’ 연구를 통해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어휘 사용 양상’에서는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 시기별의 고빈도 어휘를 알아보고, 품사별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어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기별 텍스트 전개 양상 → 신년사 텍스트 전개의 특징과 연속성 이해
- (2) 시기별 텍스트 기능 양상 →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 분석
- (3) 시기별 텍스트 어휘 양상 → 어휘와 문법의 계량적 분석을 통한 시대적 가치와 구성원의 인식변화 관찰

4.2.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전개 양상

본 절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양상을 알아보고, 시기별 각 부분 텍스트의 특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 구성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전개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각 구성별 명제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기별 전개의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2.1. 신년사 텍스트의 주제 전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신년사의 명제 구조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분류한 대통령 신년사는 다시 전개의 양상 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도입 단계는 ‘서사구조의 특징’을 지닌다.

(4)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는 혁명이 이룩하려고 하였던 많은 과업이 뜻하지 않은 겹친 천재와 정치적 동요로 말미암아 다소의 차질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시련의 해」인 동시에, 군정을 종식시키고 새 공화국과 새로운 민주적 정부를 성공리에 수립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2-1], 1964 박정희>

(5)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세계 질서를 따라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9-3], 2011 이명박>

(4), (5)는 신년사 도입의 ‘지난해 회고’ 부분이다. 지난해 회고는 (4) ㉠의 ‘지난해는’이나 (5)의 ㉡㉢과 같이 ‘지난 한 해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과 같은 ‘지난해’라는 명사가 나타나거나, 서술어에 ‘해였습니다.’, ‘우뚝 섰습니다.’, ‘달성했습니다.’와 같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었-’이 나타난다.

(6) 이제는 바람직한 것과 아닌 것,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는 제기되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안정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1], 1989 노태우>

(7)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7-2], 2000 김대중>

반면, (6)과 (7)처럼 ‘도입 부분’의 ‘각오와 다짐’의 경우에는 (6) ㉠의 ‘올해는’이나 (7) ㉢의 ‘올해부터’에서처럼 ‘올해’라는 명사가 나타난다. 또한 (6)의 ㉡이나 (7)의 ㉣처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겠’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은 과거인 지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다. 따라서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은 ‘서사구조’의 모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전개 부분’이다. 전개는 ‘국정 과제 제시’가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8) 우리는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으로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이 더욱 험해지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정치의 흐름은 질서보다도 무질서이며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치달리는 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지전은 빈발하고 있고 폭력주의가 국제사회에 횡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대전의 위험성마저 커 가는 형편인 것입니다. … 중략 … 본인은 올 한 해에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 중공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제 3 세계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6], 1986 전두환>

(9)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 중략 …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술선수범하겠습니다. <[8-1], 2004 노무현>

(8)은 1986년 신년사로 ‘외교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도전과 시련이 심해지고, 국제 정치와 질서도 불안정하며 폭력주의가 횡행하다는 내용이다. 즉 국제 정치의 무질서와 불안정의 원인이 되어 폭력주의가 횡행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원인으로 도전과 시련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부는 우방국과 우의를 두텁게 하고, 공산권 국가와 문호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한다. 요약하자면,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부분’의 정책 제시 부분은 (8)에서와 같이 원인-결과-대안의 형태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9)는 2004년 신년사로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원인으로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에 주력, 불법 행동에 단호한 대처, 공공기관부터 술선수범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8)과 (9)의 예에서 확인하였듯,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 부분’은 원인-결과-대안이라는 ‘논증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마무리 부분’은 ‘청자에게 요구’하거나, ‘화·청자 모두에게 회원’하거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제안화행’의 성격을 가진다.

(10) 오늘의 어려움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용기와 희망을 가집시다! 다 함께 화합하고 단결합시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랑스런 조국, 세계일류국가를 물려줍시다! <[6-4], 1997 김영삼>

(10)은 1997년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화자인 대통령이 청자인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단결하자면서 후손에게 세계일류국가를 물려주자고 강조하고 있다.

(11)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협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성원을 바라 마시

않습니다. <[7-5], 2003 김대중>

(11)은 2003년 신년사로 임기 마지막 해, 남은 국정 운영의 완수를 위한 ‘대통령 소임 의지’ 표현과 함께 청자인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11-2], 2019 문재인>

(12)는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내용의 2019년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이다. (10)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11)은 청자에게 바라는 내용이, (12)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회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대통령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은 화자나 청자에게 바라는 내용인 ‘제안 화행’의 성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도입 → 서사 : ㉠ 과거 - 지난해 회고, 국민 노력 감사, 자기반성,
㉡ 미래 - 국정과제 제시, 각오와 다짐

(14) 전개 → 논증 : 통일·안보·국방, 경제, 사회, 정치, 외교·문화 정책

(15) 마무리 → 제안 : ㉠ 청자에게 요구 - 국민 협조 요청, 지지 호소
㉡ 화자의 의지 - 대통령 소임 의지
㉢ 화자+청자 회원 - 국가 발전 기원, 국민 잠재력 강조

4.2.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전개 특징

본 절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연속성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기의 구분은 10년 단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신년사 구조와 명제 내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1) 1950년대

1950년대는 신년사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신년사는 총 길이가 짧았던 반면, 한 문장의 길이는 지나치게 길다는 특징을 가진다. (16)은 [1-1]의 P3으로, 하나의 문장이 71개의 어절로 되어 있다. [1-8]의 P8의 경우에는 한 문장이 143개의 어절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긴 문장 텍스트는 가독성을 떨어뜨리며, 청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16) 나태하고 한만한 생각을 일체 버려서 집안이나 이웃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하나도 없도록 힘쓰며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라도 다 내 것으로 알고 사랑하며 간수해서 우리가 살기에 편리하고 남이 보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서 우리 동리와 우리 도성이 어제보다 낮고 작년보다 새로워서 세상에 자랑하며 후세에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치 만들기로 결심하고 노력할 것이니 우리 애국남녀가 이와 같이 결심하고 일하면 지난 40년 동안에 잃어버린 세월을 얼마 안에 회복하여 문명부강에 전진 전진하는 새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1-1], 1949 이승만>

대통령 신년사 [1-1]의 S_n 은 총 8개이고, P_n 은 6개로 S_n 과 P_n 의 개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하나의 문장이 곧 한 문단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1950년대 신년사의 S_n 은 평균 11개이고, P_n 은 5개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신년사의 주제 측면의 특징을 살펴보자. C1인 도입의 내용은 ‘새해 인사’와 ‘각오와 다짐’이 주를 이룬다. [1-3]과 [1-4]의 경우에는 도입부분에서 ‘전쟁 상황’이 담기기도 하고, 원조를 해주는 우방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담기기도 한다. (17)은 우방국의 원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다.

(17) 우리 우방들이 우리를 원조해서 이만치 지낼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동시에 그 보담도 더 급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참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의 남북통일인데...중략... <[1-6], 1955 이승만>

C2, 전개부분은 ‘통일·안보·국방’분야와 경제 재건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며, (18)처럼 UN이 대한민국을 자유국가로 지지해 주었다는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 기도 한다.

(18) 레익석세스에서 열린 UN총회에서 다대수로 우리 민국을 지지하게 된 것은
우리 민국의 자유를 보전함이 세계 모든 자유국가에 긴절한 관계가 있음을 표명
하는 것이다. <[1-2], 1950 이승만>

(19) 우리 국군 장병은 나라에 목숨을 공헌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뿐이 자기 직책으로 알
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 공황을 깨달아서 각각 자기들이 먹고 입는 것까지
라도 경제해서 어려운 것을 참고 지내가며 가옥 건축과 도로·교량 수리 또 산림
보호와 수력발전 등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중략... <[1-8], 1955 이
승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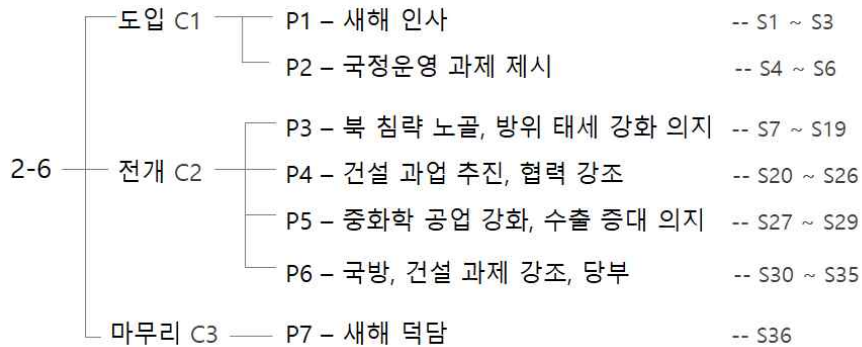
한국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50년대는 준전시 상태로 국방에 대한 대비와 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 (19)를 통해, 전쟁 이후 국가의 재건은 군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1950년대 신년사의 마무리는 주로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다루어진다.

1950년대 신년사는 정책의 제시보다 경제를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하며, 원조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2) 1960년대

1950년대 대통령 신년사가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아직 완성도가 떨어졌던 반면, 1960년대 신년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 1960년대 Sn은 평균 35개이며, Pn은 7개이다. Pn이 7개인 신년사 텍스트는 [그림 13]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그림 13]은 [2-6]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도입인 C1의 Pn이 2개, 전개인 C2가 4개, 마무리인 C3가 1개의 형식을 띤다. 1950년대 보였던 긴 문장의 형태도 이 시기에 사라진다.



[그림 13] [2-6]의 구조 분석

이전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인해 1960년대는 혁명의 정부가 탄생한다. 새로운 정부는 가난한 나라로부터 탈출이라는 절박하고 긴요한 사명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1960년대 전개부분의 주된 내용은 경제 건설과 수출 증대에 집중된다.

(20)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결시키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작년의 100달러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적어도 그 2배로 끌어 올리고 점차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단계까지 끌어 올려서, 우리 사회에서도 『소비는 미덕이다』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선진 국가 대열에까지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2-3], 1966 박정희>

(21) 이제까지 우리 힘이 잘 미치지 못했던 중화학공업, 종합제철, 기계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 육성하고, 수출산업과 전력이나 수송력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현대화를 기하여, 제2차 5개년계획 사업을 더욱 촉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2-6], 1969 박정희>

그러나 1960년대 경제 정책은 (20)과 (21)에서와 같이 산업의 육성과 개발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의 국정운영 방안이 주를 이루고, 세부적인 정책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 발전과 도약은 정부의 정책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각 정책이 다루어질 때마다 국민인 청자의 각성과 분발, 희생과 협조의 당부를 담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22) 멀고 험한 길일지언정,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써 헤치고 뚫고 나갑시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우리 2,700 만동포의 힘을 하나로 뭉치는 일입니다. 인화와 단결로써 힘을 뭉치고, 검소와 근로로써 생산에 총 매진합시다. <[2-2], 1965 박정희>

(22)와 같은 ‘당부의 말’은 주로 마무리 부분에서 다루어지는데, 1960년대 신년사에서 전개 부분에도 자주 등장한다. 마무리 부분은 새해 덕담과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1970년대

1960년대 대통령 신년사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보았다면, 1970년대는 국가 운영 방안과 정책이 보다 세분화 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Sn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3) 고속 도로망을 완성하고 4대강 유역의 개발에 착수하여 지역 발전과 지방도시의 개발에 더욱 힘을 쓸 것이며, 전국의 1일 생활권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력을 농어촌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식량 증산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참여는 보다 활발해질 것입니다. <[2-8], 1971 박정희>

(23)은 경제 개발 성과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 생활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면서부터 신년사의 의미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24)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유신과업은, 국력을 하루 속히 증강하여, 작게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이 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크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서 민족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신과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과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과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를 제거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0], 1973 박정희>

(25)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각 분야에서 낭비를 배격하고 능률을 더욱 극대화해서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여 자립 체제의 달성을 앞당겨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근면, 협동으로 증산을 기하고, 자조, 검약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력은 막강하게 배양되고, 그 국력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건실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3], 1976 박정희>

(26) 이 모든 성과는 각 각층의 국민 여러분이 그 동안 유신적 가치관을 생활신조로 삼아 맡은 바 직분에서 성실히 실천 노력해 온 보람이라 믿고,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따뜻한 위로와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2-15], 1978 박정희>

(24)는 전개 부분에 등장하는 유신과업 독려 내용이다. 전개 부분의 주요 내용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의 제시인데,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이 모두 유신 과업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고, (25)에서와 같이 국민의 희생과 인내, 도덕적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심지어 (26)과 같이 도입 분의 ‘지난해 성과’도 유신 가치관의 실천 덕분임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도 유신의 기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된다.

반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가 완성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1970년대 Sn의 수는 평균 42개이다. 반면 Pn은 8개로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데, 이는 각 문단의 수는 일정하지만, 이에 따른 세부 설명만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이다. 따라서 1970년대는 대통령 신년사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 그 틀이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4) 1980년대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이루고, 기나긴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1980년대. 대한민국은 1980년대를 거치며 국가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민 의식도 성장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신년사의 전개 부분에 제시되는 정책의 방향이 다양화, 세분화 되며, 국민의 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사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27) 첫째, 공공투자를 더욱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주택, 의료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에 대한 지출을 점차 늘려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요즘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책을 넓혀 나가고 취업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이 기본적으로 소득 능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염원입니다. <[4-1], 1981 전두환>

(27)은 [4-1]의 전개 부분 중 사회 정책 부분의 예이다. 앞 장의 <표 10>을 보면 1970년대에는 부족했던 사회 복지 정책이 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Sn도 70년대 비해 60%가 늘어 평균 71개가 되며, [4-6]의 Sn의 경우에는 211개까지 늘어난다. 반면 Pn의 평균 수는 8개로 일정한데, 이로서 197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 신년사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전개 부분만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은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는 1980년대부터 갖추어지며, 각 시기에 따라 중요시 되는 국정 운영 방안과 정책의 세부 내용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5) 1990년대

1980년대까지 대통령 신년사 구조는 전체 텍스트의 길이는 길어져도 Pn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면 Sn의 수도, Pn의 수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전의 신년사가 '경제 개발과 성장', '안보와 통일'이라는 2가지 이슈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다른 정책과 과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열망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다. (28)은 이러한 정책이 신년사에 드러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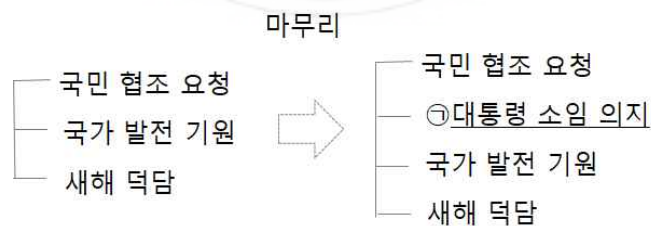
(28) 넷째,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둘 것입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 교통난과 환경오염, 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 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6-3], 1996 김영
삼>

1990년대 Sn의 평균은 120개, Pn은 10개가 된다.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이 ‘경제,
통일·안보·국방, 사회, 정치, 외교, 문화’의 6부분으로 세분화 되고, 마무리 부분의 ‘대
통령 소임 의지’에 대한 명제 내용이 집중적으로 증가⁴⁰⁾했기 때문이다.

(29) ㉠나의 임기에 해당하는 앞으로의 3년간은 우리가 변영된 선진국으로 뛰어
오르느냐 …중략…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겨레 모두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어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
이 준엄한 역사 인식 속에 올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5-2], 1990
노태우>

(29)의 ㉠과 ㉡은 화자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 표지로 ‘나’를 사용
하는 경우의 예이다. 지금까지의 신년사는 주어가 생략된 채 서술되었는데, (29)에서
는 주어 표지가 드러난다. (29)는 ‘대통령 소임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
를 통해 우리는 1990년대부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변화⁴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텍스트 생산자는 신년사에 주어 표지를 드러내어 정책 실천 의지를 강조
하고, [그림 14]처럼 마무리 부분에서 ‘㉠ 대통령 소임 의지’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변
화를 준다. 이것은 직선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된 1990년대의 현실이 반영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림 14] 1990년대 마무리 부분의 변화

40)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이전의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하고 지시했다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인 1990년대부터는 대통
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국민과 함께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
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소임 의지’는 양태종(1997)이 주장한, 연설문의 결론에 사용하는 원칙인 ‘호감을 사는 감정 수단’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전개 부분에서 제시한 국정 운영 방안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청자는 화자에 대한 믿음과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2000년대

(30)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7-2], 2000 김대중>

(30)은 2000년에 발표된 [7-2]의 도입 부분이다. 이전의 신년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긴 도입 부분이다. 지금까지 신년사의 도입 부분은 ‘지난해 회고’와 함께 ‘자기반성’, 새해의 ‘각오와 다짐’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0년대 신년사의 시작은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다.

(31) ①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②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③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④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⑤이 기간 전체가 제 임기 중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⑥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⑦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⑧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⑨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⑩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⑪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8-3], 2006 노무현>

(31)은 [8-3]의 도입으로 ‘지난해 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950년대 (16)과 비슷한 분량인데 (16)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면, (31)은 11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2000년대 신년사에서 Sn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8-4]의 경우에는 Sn이 968개에 이르기도 한다. Pn의 평균도 2000년대 신년사에서는 12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신년사의 발표는 지면이나 TV로 이루어졌다. TV 발표도 녹화를 해 두고

새해가 되면 방송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90년 후반부터 대통령 신년사는 생방송의 연두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되기 시작한다. 대통령 신년사는 기자회견의 시작부분인 ‘모두 발표’ 형식을 띠게 된다. 그래서 신년사 텍스트는 화자와 청자를 고려한 구어 형식⁴²⁾을 갖게 된다. 따라서 (31)과 같이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Sn의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대까지 이어진다.

7) 2010년대

2010년대가 되면 대통령 신년사의 형식은 [그림 12]와 같은 형태로 완성된다. (32), (33), (34)는 2010년대 발표된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이다. 이전의 신년사의 마지막 문장이 주로 ‘6천만 동포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4-5]와 같이 ‘새해 덕담’으로 끝을 맺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이다.

(32) 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한 시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9-2], 2010 이명박>

(33)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0-3], 2016 박근혜>

(34)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2], 2019 문재인>

2010년대 신년사의 마지막은 ‘국민 협조 요청’이나 ‘잠재력 강조’ 후, ‘새해 덕담’ 없이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신년사 발표 후 기자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구조와 명제 내용의 특징은 2000년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42) 신년사를 녹화 후 방송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원고를 그대로 읽고, 수정을 거쳐 방송이 된다는 점에서 구어의 형식을 빌린 문어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생방송으로 발표되는 ‘모두 연설’용 신년사는 화자의 즉흥성이 조금 더 가미 된 것으로 보아, 구어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구어라고 볼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3.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 양상

본 절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기능을 알아보고, 각 시기별로 텍스트의 기능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의사소통 중에 생산되는 생산자의 의도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의도한 의사소통 목적이 담기게 된다. ‘텍스트 기능’은 생산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된 ‘의사소통의 기능’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생산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가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지 알아본다.

4.3.1.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

언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오스틴(Austin 1962)은 인간의 언어 행위(speech act)를 화행(話行)이라 명명하며, ‘언어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스틴은 대화의 행위, 즉 ‘화행’을 화자가 ㉠‘발화 행위’라는 언어 표현 행위를 하면,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와 목표가 ㉡‘발화수반행위’로 추구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청자는 특정한 방식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를 ㉢‘발화효과행위’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오스틴은 화행을 세 가지 국면으로 설명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의 화행 의도와 목표가 드러나는 ‘발화수반행위’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쉴(Searle 1976)은 오스틴의 ‘발화수반행위’를 (35)와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한다.

(35) 쉴(1976)의 화행 유형

- ① 단언행위(Assertives)
- ② 지시행위(Directives)
- ③ 위임행위(Commissives)
- ④ 정표행위(Expressives)
- ⑤ 선언행위(Declarations)

단언행위는 ‘화자가 표현한 명제를 청자로 하여금 참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화행’이며, 지시행위는 ‘청자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를 표현하는 화행’, 언약행위는 ‘화자가 어떤 행동에 자신을 구속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화행’, 표현행위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를 표현하는 화행’, 선언행위는 ‘발화를 통해 세

상을 바꾸는 화행'이다(김소희 2011; 31-34). 주혜영(2015)은 화행의 '발화수반행위'가 '텍스트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나 목적과 비슷하다'며 '발화수반행위는 텍스트의 기능과 직접 관련을 맺는다'고 설명한다.

브링커(Brinker 1985)는 텍스트에 나타난 생산자의 의사소통 기능을 쉘(1976)의 화행 유형을 바탕으로 (36)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36) 브링커(1985)의 텍스트 기능

- ① 제보기능(Informations function)
- ② 호소기능(Appell function)
- ③ 책무기능(Obligations function)
- ④ 접촉기능(Contact function)
- ⑤ 선언기능(Declarations function)

제보기능은 '수용자에게 텍스트 생산자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혹은 의견을 전달하는 텍스트의 기능'을 말한다. 신문기사, 안내문, 보고서, 서평 등과 같은 텍스트에서 돋보이며, '설명하다', '알리다', '예상하다' 등과 같은 수행 동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호소기능**은 '수용자에게 생산자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생산자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신문사설, 변론, 성명서, 신청서와 같은 텍스트에서 드러난다. 또한 '명령하다', '제한하다', '청구하다' 등과 같은 수행동사가 쓰인다. **책무기능**은 '생산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수용자에게 알리는 텍스트 기능'이다. 각서, 보증서, 승인서, 합의서등과 같은 텍스트에서, '맹세하다', '약속하다', '보증하다' 등과 같은 수행동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접촉기능**은 '개인, 집단, 혹은 기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텍스트 기능'을 말하며, 사과문, 축하카드, 격려문과 같은 텍스트에, '감사하다', '사과하다', '축하하다' 등과 같은 수행동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선언기능**은 '임명장이나 판결문, 성혼선언문과 같이, 텍스트 생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태, 혹은 사실을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주로 '임명하다', '증명하다', '지정하다' 등과 같은 수행동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텍스트언어학회 2009; 148-160). 이것을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텍스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화행의 구조를 토대로 발화수반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표 14>에서 나타난 수행동사와 문장의 종결형과 같은 명시적인 표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표 14> 텍스트 기능을 드러내는 표지, 수 행동사와 문장 종결형(고영근 2011:208-212)

텍스트 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선언기능
화행유형	단언화행	지시화행	위임화행	정표화행	선언화행
수행 동사	알리다 보고하다 전달하다 표명하다 통지하다 고백하다 예고하다 밝히다 추정하다 설명하다 주장하다 평가하다 제보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조언하다 신청하다 명령하다 주문하다 추천하다 다짐하다 처방하다 지시하다 부탁하다 충고하다 간청하다	약속하다 맹세하다 보증하다 의무를 지다 의무를 맡다 결심하다 서약하다 승인하다 허락하다 확약하다 제안하다	감사하다 기원하다 저주하다 칭찬하다 환영하다 불평하다 고맙다 애석하다 우려하다 유감이다 걱정이다 기쁘다 미안하다	선언하다 위임하다 증명하다 권리를 주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유언하다
종결 형태	평서문	평서문 청유문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평서문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기능은 하나만 실현되기도 하지만,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이은경 2003; 236). 특히 여러 개의 의미단락으로 이루어진 완결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각 단락마다 기능이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 구조에서처럼 ‘도입, 전개, 마무리’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을 살펴보자.

1) 도입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① 새해 인사 ② 지난해 회고 ③ 국민 노력 감사 ④ 국정과제 제시 ⑤ 각오와 다짐 ⑥ 자기반성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7)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3-1], 1980 최규하>

(37)은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① 새해 인사에 해당된다. 관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자의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텍스트의 접촉기능이다. (37)은 텍스트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수신자의 복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기원합니다’와 같은 접촉기능 수행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38) 문민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고, 군 인사를 쇄신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치개혁 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6-2], 1995 김영삼>

(38)은 ② 지난해 회고부분인데 텍스트 생산자가 작년에 시행된 정책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는 텍스트의 제보기능에 해당되며, 역시 ‘실시했습니다’, ‘단행했습니다’와 같은 유표적인 서술어로 제보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39)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11-2], 2019 문재인>

(39)는 ③ 국민 노력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감사드리다’와 같은 수행동사 표지를 통해 접촉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40)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9-1], 2009 이명박>

(40)의 ‘제시하다’라는 수행동사는 제보기능을 나타내는 표지로, 생산자가 사실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제보기능을 나타낸다. (40)은 도입 부분의 ④ 국정과제 제시에 해당된다.

(41)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믿고 협동하여, 국민 총화로

써 조국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을 세워야 하겠다는 결의를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2-11], 1974 박정희>

(41)은 ⑤ 각오와 다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호소기능이 드러난다. 특히 수행동사인 ‘다짐하다’라는 표지를 통해 생산자의 생각을 강조,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간접 요구하는 호소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42)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7-4], 2002 김대중>

(42)는 ⑥ 자기반성부분으로 ‘죄송하다’는 수행동사를 통해 접촉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부분의 텍스트 기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대통령 신년사 도입부분의 텍스트 기능

새해 인사	지난해 회고	국민 노력 감사	국정과제 제시	각오와 다짐	자기반성
접촉기능	제보기능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	접촉기능

<표 15>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이 나타나며,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의 순서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도입부분의 주된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과 **제보기능**, 그리고 **호소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개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부분은 크게 ① 현재 상황과 ② 정책제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현재 상황은 텍스트 생산자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보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3) 지금 국제정세는 1970년대에 지향되어 오던 강대국 간의 평화공존 분위기가 크게 후퇴하고, 또 동서긴장 완화 면에서도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3-1], 1980 최규하>

(44) 2010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 있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9-2], 2010 이명박>

(43)과 (44)는 신년사 전개부분의 ① 현재 상황에 대한 예시이다. 모두 생산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제보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45) 레익석세스에서 열린 UN총회에서 다대수로 우리 민국을 지지하게 된 것은 우리 민국의 자유를 보전함이 세계 모든 자유국가에 긴절한 관계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1-2], 1950 이승만>

(45)는 [1-2]의 ② 정책제시부분으로 ‘표명하다’라는 제보기능을 표지하는 수행동사가 나타난다. (33)처럼 명시적인 제보기능 수행 표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정책제시부분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보기능을 실현한다.

(46) 님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둘 것입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 교통난과 환경오염, 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 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3], 1996 김영삼>

(46)도 [6-3]의 정책제시 부분으로 명시적 수행동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제보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부분의 주된 텍스트기능은 제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 마무리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마무리 부분은 ① 국민 협조 요청 ② 새해 덕담 ③ 대통령 소임 의지 ④ 국가 발전 기원 ⑤ 국민 잠재력 강조 ⑥ 국민 노력 감사 ⑦ 지지 호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47)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10-2], 2015 박근혜>

(47)은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① 국민 협조 요청에 해당된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의견과 이를 위해 국민이 행동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47)은 ‘의견감화’와 ‘행동감화’⁴³⁾가 모두 드러난다. 그리고 ‘희망하다’, ‘바라다’와 같이 호소기능을 표지하는 수 행동사가 쓰여 명시적인 호소기능으로 볼 수 있다.

② 새해 덕담은 도입부분의 ‘새해인사’와 같은 형식이므로 접촉기능이 나타난다. (48)은 [8-5]의 ③ 대통령 소임 의지로, 명시적으로 ‘약속’이나 ‘맹세’와 같은 언어표지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약속하고 있으므로 책무기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8) 새해가 국가적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 2008 노무현>

(49) 끝으로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가호 아래, 조국의 근대화와 국토통일 이 하루속히 이룩될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3], 1966 박정희>

(49)는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 중 ④ 국가 발전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새해 덕담’과 마찬가지로 접촉기능이 나타난다. 접촉기능 수 행동사인 ‘기원하다’라는 표지가

43) 브링커Brinker는 호소기능 텍스트를 ‘의견감화’와 ‘행동감화’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의견감화’는 ‘저(생산자)는 당신(수신자)에게 다음 생각/의견을 받아들여기를 요구합니다’와 같은 발화 형식으로, ‘행동감화’는 ‘저(생산자)는 당신(수신자)에게 다음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텍스트언어학회 2009: 151-152).

이를 더 명확히 해준다.

(50)은 ⑤ 국민 잠재력 강조 부분으로 ‘확신하다’와 같이 단언화행 수행동사가 쓰였다. 이는 텍스트 기능상 제보기능에 해당되며, 텍스트 생산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 바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제보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50) 우리는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고, 또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온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뭉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면 이 난국도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3-1], 1980 최규하>

⑥ 국민 노력 감사는 도입부분에도 나타나고 있고, 접촉기능을 가지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51)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협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7-5], 2003 김대중>

마지막으로 ⑦ 지지 호소는 (51)과 같이 나타나는데, 생산자가 수신자에게 계속되는 성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동감화’인 호소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6>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

국민 협조 요청	새해 덕담	대통령 소임 의지	국가 발전 기원	국민 잠재력강조	국민 노력 감사	지지 호소
호소기능	접촉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제보기능	접촉기능	호소기능

<표 16>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 마무리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호소기능, 접촉기능, 책무기능, 제보기능이 나타나며, 접촉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제보기능의 순서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부분**의 가장 주된 기능은 **접촉기능**과 **호소기능**, **책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52) 신년사 텍스트 도입 부분 → 접촉기능 > 제보기능 > 호소기능

신년사 텍스트 전개 부분 → 제보기능

신년사 텍스트 마무리 부분 → 접촉기능 > 호소기능 > 책무기능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은 제보기능과 접촉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호소기능과 책무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4.3.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기능 특징

지금까지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을 통해 텍스트에 담긴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를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각 시기별로 신년사 텍스트의 기능은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1) 1950년대

1950년대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부분의 의미단락을 살펴보면, 새해 인사 8회, 지난해 회고 3회, 국민노력 감사, 각오와 다짐, 기타⁴⁴⁾가 각 1회씩 나타난다. 이를 텍스트 기능별로 묶어보면, 새해 인사와 국민노력 감사는 접촉기능, 지난해 회고와 기타는 제보기능, 각오와 다짐은 호소기능을 실현한다.

- 1) 접촉기능 - 새해인사(8회), 국민노력 감사(1회),
- 2) 제보기능 - 지난해 회고(3회), 기타(1회)
- 3) 호소기능 - 각오와 다짐(1회)

이를 통해 1950년대 도입 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9회)과 제보기능(4회)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부분⁴⁵⁾은 국가 발전 기원이 6회, 새해 덕담이 5회, 국민 노력 감사가 1회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접촉기능을 하므로, 1950년대 신년사 마무리 부분은 접촉기능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4) 4.2.에서 살펴보았듯 1950년대 도입 부분의 기타 내용은 원조를 해주는 우방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에 해당되므로 접촉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5)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기능에서 전개 부분은 모두 제보기능을 나타내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4.2.2.에서 살펴보았듯 1950년대는 신년사의 개념이 없던 시기로, 전개 부분의 내용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다. 게다가 전개 부분의 분량도 도입과 마무리에 비해 적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1950년대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기능은 제보기능 보다 접촉기능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50년대 신년사는 접촉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며 제보기능을 부차적으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2) 1960년대

1960년대 신년사 텍스트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접촉기능을 나타내는 새해 인사와 국민 노력 감사가 9회로 가장 많고, 제보기능인 지난해 회고와 국정 과제 제시가 8회 나타났다. 그리고 각오와 다짐이 1회였다. 따라서 도입 부분의 주된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전개 부분은 1950년대에 비해 내용이 많아지면서 제보기능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마무리 부분은 접촉기능인 새해 덕담과 국가 발전기원, 국민노력 감사가 12회로 여전히 접촉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60년대부터 국민 협조 요청(5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호소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전개 부분의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 대통령 신년사는 제보기능과 접촉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 중심을 이루게 되며,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3) 1970년대

접촉기능이 중심이었던 1950년대 신년사가 1960년대부터는 주 텍스트 기능으로 제보기능이 추가된다. 1970년대가 되면 대통령 신년사의 구조는 그 틀이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촉기능과 함께 제보기능이 신년사 텍스트의 중심이 되며, 부가적인 기능도 늘어나게 된다.

우선 도입 부분의 접촉기능은 15회로 나타난다. (새해 인사 10회, 국민 노력 감사 5회) 또한 제보기능을 하는 지난해 회고 부분 7회와 국정과제 제시가 2회 나타난다. 반면 그동안 중요시 되지 않았던 각오와 다짐(4회), 즉 호소기능도 도입부분에서 실현된다.

(53) ①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유신과업은, 국력을 하루 속히 증강하여, 작게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크게

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서 민족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것입니다. ②다시 말해서 이 유신과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과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과업입니다. ③따라서 이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를 제거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0], 1973 박정희>

4.2.2.의 ‘1970년대 신년사 구조’에서 살펴보았듯, 70년대 신년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내용면에서 왜곡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 왜곡 현상은 텍스트 기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53)과 같은 예를 통해서이다. (53)은 [2-10]의 전개 부분으로 경제와 통일을 위한 과제 제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①, ②, ③ 3개의 문장은 모두 하나의 의미단락이지만, ①과 ②는 제보기능을, ③은 호소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①, ②, ③은 모두 하나의 의미단락에 속하므로 호소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전개 부분의 주된 텍스트 기능은 제보기능이 아닌, 호소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도 살펴보자.

(54) ①나는 오늘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국력 배양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우리 모두의 실천적 생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②국민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4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③우리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도 다름 아닌 자립 체제를 완성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④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각 분야에서 낭비를 배격하고 능률을 더욱 극대화해서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여 자립 체제의 달성을 앞당겨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근면, 협동으로 증산을 기하고, 자조, 검약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2-13], 1976 박정희>

(54)는 1970년대 전개 부분의 ‘경제 개발 계획 제시’ 내용이다. 총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의미단락은 ①, ②, ③이 제보기능적 역할을 한다면, ④와 ⑤는 호소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 하’라는 표현과 ‘근면, 협동으로 증산을 기하고, 자조, 검약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표현은 수신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호소기능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970년대 신년사의 전개 부분이 제보기능이 아닌 호소기능의 역할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55) 올해는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구상을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가파른 대내외 여건을 뚫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의 탄탄한 대로에 진입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필코 완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완전고용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다각적으로 취한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40~50만 명씩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보다 ①활발한 투자와 수출증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4-6], 1986 전두환>

반면 (55)는 1980년대 전개 부분으로, 1970년대의 (54)와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기능은 다르게 나타난다. (54)의 ④와 (51) ①의 문장 종결형은 '~해야 ~ 하겠습니다.'로 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의 주체가 수용자이나, 아니냐에 따라 그 기능은 달라진다. (54) ④의 주체는 수용자이므로 호소기능을 실현하고, (42)의 ①은 생산자가 그렇다고 믿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보기능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970년대 신년사 전개 부분은 제보기능의 형태를 가지지만, 호소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무리 부분에서도 주목할 점은 접촉기능이 11회로 여전히 그 비중이 높지만, 이전과 달리 호소기능인 국민협조 요청이 10회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전개 부분에서도 호소기능의 비중이 높았는데, 마무리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대통령 신년사는 호소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접촉기능이 부차기능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1980년대

1980년대가 되면 신년사의 형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1970년에 보였던 왜곡현상이 사라진다. 도입 부분의 텍스트기능은 접촉기능이 14회(새해 인사 8회, 국민 노력 감사

6회), 제보기능이 10회(지난해 회고 7회, 국정 과제 제시 2회, 기타 1회), 그리고 호소 기능이 2회(각오와 다짐)로 나타나, 1980년대 도입은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개 부분은 본연의 기능인 제보기능을 보이며, 마무리 부분은 호소기능인 국민 협조 요청이 9회, 접촉기능인 새해 덕담이 6회, 국가 발전 기원이 1회 나타난다. 따라서 전개 부분은 제보기능을, 마무리 부분은 접촉기능과 호소기능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신년사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5) 1990년대

1990년대가 되면 신년사의 전개 부분의 비중이 커진다. 이는 4.2.2.의 텍스트 구조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의 정책과 과제가 다양해진 까닭 때문이다. 따라서 신년사 텍스트의 중심은 전개 부분이 담당을 하게 되고, 텍스트 기능상의 주된 영역도 제보기능이 실현하게 된다.

반면, 도입과 마무리 부분은 그 영역이 확고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도입이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을, 마무리는 접촉기능과 호소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신년사 텍스트부터 그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책무기능인 대통령 소임 의지가 8회 나타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가 텍스트 기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대통령 신년사의 목적은 접촉과 호소, 제보 기능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텍스트 생산자인 대통령의 역할과 소임에 관한 책무 기능이 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신년사 텍스트의 주요 기능은 제보기능과 접촉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호소기능과 책무기능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2000년대, 2010년대

2000년대부터는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텍스트 구조가 명확해지며, 각 부분별 텍스트 기능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00년대 도입 부분의 접촉기능은 14회, 제보기능은 13회, 호소기능이 2회가 나타나며, 마무리 부분은 접촉기능이 9회, 제보기능이 4회, 호소기능이 6회, 책무기능이 7회로 나타난다.

2010년대 도입 부분은 접촉기능이 14회, 제보기능이 9회, 호소기능이 1회로 2000년

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마무리 부분에서 책무기능은 1990년대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하여, 꾸준히 실현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국민 잠재력 강조가 증가(4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2010년에는 국민 잠재력 강조가 1회 나타나며 다시 줄어든다.

다만, 전개부분의 제보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2000년대 이후 대통령 신년사의 역할이 접촉기능보다 제보기능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표 17> 대통령 신년사 전개 부분, 정책별 의미단락의 수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현재 상황	9	4	9	3	5	3	4
통일·안보·국방	10	6	10	7	8	7	9
경제	7	6	9	9	9	10	9
사회	1	1	7	16	32	37	34
정치	1	1	3	5	9	7	3
외교	2	2	1	3	4	2	4
문화			5	3	2	4	3
기타			1939	4	1	3	
소계	30	20	44	50	70	73	66

<표 17>은 전개 부분의 각 시기별 의미 단락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 분야의 정책이 세분화 되고, 다양해져 그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80년대까지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해의 계획인 국정과제 제시가 목적이었다면, 1990년대가 되면, 새해 인사의 접촉기능 보다는 한 해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제보기능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8>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횟수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접촉기능	새해인사	8	6	10	8	9	10	7
	국민 노력 감사	1	3	5	6	4	3	6
	자기반성					1	1	1
소계		9	9	15	14	15	14	14
제보기능	지난해 회고	3	5	7	7	7	5	6
	국정 과제 제시		3	2	2	2	7	3
	기타	1			1	1	1	
소계		4	8	9	10	10	13	9
호소기능	각오와 다짐	1	1	4	2	3	2	1

<표 18>은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 도입 부분의 텍스트 기능의 실현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신년사의 구조가 일정해짐에 따라 텍스트 기능의 횟수도 비슷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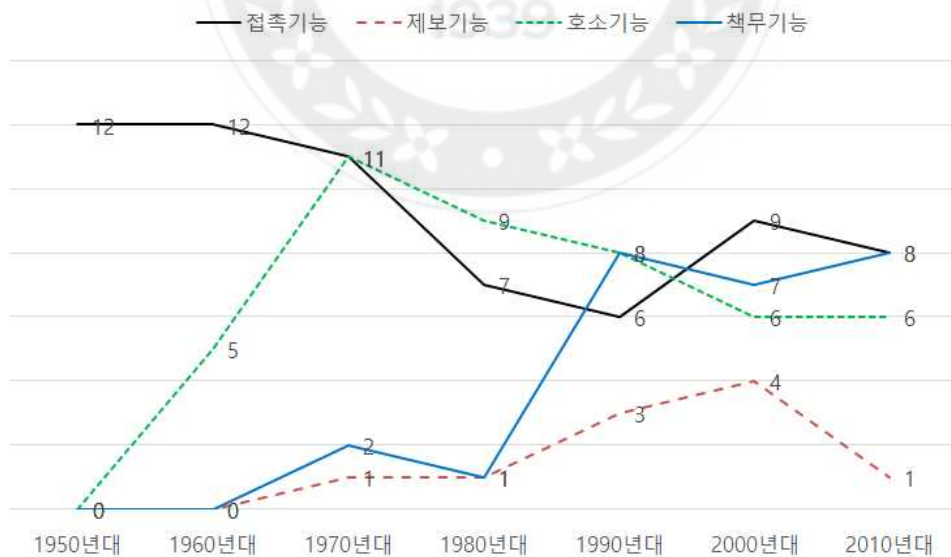


[그림 15] 대통령 신년사 도입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표 19>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횟수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접촉기능	새해덕담	5	6	7	6	4	6	3
	국가 발전 기원	6	1	4	1	2	3	5
	국민 노력 감사	1	5					
소 계		12	12	11	7	6	9	8
호소기능	국민 협조 요청		5	10	9	8	4	6
	지지호소			1			2	
소 계		0	5	11	9	8	6	6
제보기능	국민 잠재력 강조			1	1	3	4	1
책무기능	대통령 소임 의지			2	1	8	7	8

<표 19>는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에는 접촉기능 위주였던 것이, 호소기능이 첨가되면서 제보기능, 책무기능까지 그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대통령 신년사 마무리 부분의 시기별 텍스트 기능 실현

4.4.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양상

이 절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어휘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어휘를 통해 텍스트 생산 당시 한국인의 의식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빈도 어휘를 조사, 품사별로 각각의 특징과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대별 어휘의 변화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관찰해보기로 한다.

4.4.1.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대통령 신년사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신년사 전체 어휘를 계량하여 빈도를 조사⁴⁶⁾하였다. 아래 <표 20>은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 전체의 고빈도 상위어⁴⁷⁾ 100개를 제시한 것이다.

<표 20> 대통령 신년사의 상위 고빈도 어휘 (대=대명사, 관=관형사, 부=부사)

순번	어휘	개수	순번	어휘	개수	순번	어휘	개수
1	우리	1654	34	많다	164	67	드리다	84
2	국민	964	35	성장	160	68	다하다	83
3	있다	942	36	이루다	151	69	중소	82
4	경제	638	37	그리고	143	70	다 (부)	82
5	위하다	566	38	일자리	142	71	참여	81
6	되다	539	39	산업	141	72	앞	80
7	정부	522	40	노력	140	73	변화	79
8	하다	487	41	사람	140	74	그렇다	79
9	없다	424	42	통하다	140	75	온 (관)	78

46) 계량적인 어휘 분석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2.0]을 이용하였다. 자료제공 <https://ithub.korean.go.kr/user/total/programView.do>

47) 고빈도 어휘 분석 과정에서 관계어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적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독립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10	사회	330	43	교육	128	76	높다	78
11	나라	299	44	정책	126	77	힘	77
12	세계	292	45	민족	125	78	국제	76
13	이 (관)	290	46	더욱	123	79	또	76
14	여러	282	47	추진	119	80	동포	73
15	일	273	48	가지다	118	81	새 (관)	73
16	국가	267	49	어렵다	118	82	맞다	73
17	한 (관)	267	50	이제	117	83	좋다	73
18	저 (대)	258	51	혁신	116	84	높이다	71
19	이 (대)	249	52	대하다	113	85	문화	70
20	모든	249	53	받다	110	86	보다	70
21	여러분	237	54	지원	109	87	많이	69
22	기업	235	55	올해	108	88	어떻다	66
23	만들다	212	56	지금	108	89	가장	65
24	그 (관)	210	57	정치	107	90	이것 (대)	63
25	크다	204	58	말	101	91	투자	62
26	문제	196	59	생각	101	92	그것 (대)	62
27	개혁	195	60	위기	101	93	이런 (관)	61
28	더	192	61	같다	99	94	수준	59
29	새롭다	192	62	평화	96	95	그 (대)	58
30	그러나	184	63	통일	94	96	선거	57
31	발전	169	64	안정	87	97	열다	57
32	시대	168	65	다시	87	98	무엇	56
33	함께	168	66	나	86	99	해결	51
						100	바로	50

고빈도어 100개를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분류하여 보면, 체언이 53%, 용언이 26%,

수식언이 21%로 나타났다. 특히 고빈도 상위 10개의 어휘 중 체언은 ‘우리> 국민> 경제> 정부> 사회’의 순서로, 용언은 ‘있다> 위하다> 되다> 하다>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 품사별 고빈도 어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

1) 명사

<표 21>은 명사의 고빈도 어휘 10개이다. ‘국민’이 96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들은 ‘정부, 나라, 국가, 사회’ 그리고 ‘경제, 일, 기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국민’은 주로 청자를 지칭할 때 쓰이는 어휘이고, ‘정부’나 ‘국가’, ‘나라’, ‘사회’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어휘, ‘경제’나 ‘일’, ‘기업’은 공동체의 삶인 경제와 관련된 어휘이다.

<표 21> 명사의 고빈도 어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명사	국민	경제	정부	사회	나라	세계	일	국가	기업	문제
개수	964	638	522	330	299	292	273	267	235	196

신년사는 화자인 대통령이 청자인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므로 청자를 지칭하는 어휘인 ‘국민’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사의 고빈도 어휘 중 공동체와 관련된 어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화자가 청자와의 결속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경제 관련 어휘를 통해 화·청자의 공통 관심사는 공동체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화자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2) 대명사

다음 <표 22>는 대명사의 고빈도 어휘이다.

<표 22> 대명사의 고빈도 어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대명사	우리	저	이	여러분	나	이것	그것	그	무엇	본인
개수	1654	258	249	237	86	63	62	58	56	46

대명사의 고빈도어 1위는 ‘우리’⁴⁸⁾이다. 총 1654회가 나타났는데, 이는 신년사 전체 어휘 중에서도 1위에 해당된다. 김봉균(1993)⁴⁹⁾은 1인칭 대명사 복수형인 ‘우리’가 강조되는 문장의 경우, 화·청자 간 공감력을 증대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신년사에 나타나는 ‘우리’는 국민과 대통령이 하나임을 강조,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화자인 대통령이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을 청자와 같은 위치로 낮추어 표현하는 격이라 겸손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2인칭 대명사 ‘여러분’도 겸손함을 드러내는 어휘로 볼 수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⁵⁰⁾라고 정의한다. ‘여러분’은 여러 명의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당신’은 주로 단수로 활용되는데 반해, ‘여러분’은 복수의 대상을 가리킨다. 정치담화에서는 ‘당신’이라는 개별적 지칭 보다는 ‘여러분’이라는 공동체적 지칭이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더 선호 되는 경향을 보인다.(최윤선 2014)

대명사의 고빈도어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1인칭 대명사 - 복수형: 우리
단수형: 나, 본인, 저
- 2) 2인칭 대명사 - 복수형: 여러분
- 3) 3인칭 대명사 - 이, 그
- 4) 지시 대명사 - 이것, 그것, 무엇

1인칭 대명사 단수형의 ‘나, 본인, 저’의 경우, 주로 화자인 대통령 자신을 지칭한다.

(56)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나의 소신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2-12], 1975 박정희>

48) 정치담화에서 ‘나’ 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전략이 선호되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나보다 우리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치담화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나를 앞세워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나의 생각이 바로 국민들의 생각과 동일하며, 그것이 ‘우리’로의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그 성패가 달리기 때문이다.(최윤선 2014)

49) 김현국(2001; 36) 재인용

5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7) 나는 이와 같이 준엄한 역사 인식 속에 올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5-2], 1990 노태우>

(56)과 (57)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특히 (57)과 같이 국정 운영에 관한 표현에 ‘나’가 나타나면, 화자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어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선과 오만으로 읽혀, 청자의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위가 높아서 대우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공개석상에서 대중들을 대우할 때 쓰는 낮춤말이다.

(58)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9-1], 2009 이명박>

(59)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11-1], 2018 문재인>

(58)과 (59)는 ‘저’가 쓰인 예로, 이러한 표현은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0년대가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표 23>을 보면 ‘나’의 경우, 1970년대까지 고빈도로 나타나다가 이후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80년대를 기점으로 화자인 대통령의 위치 설정이 변모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 대통령은 권위적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미지였다면, 80년대 이후부터는 대통령 자신을 청자와 같은 위치로 낮추어 표현, 겸손함을 드러내고, 국민을 대우하려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1인칭 대명사의 시기별 고빈도 출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우리	○	○	○	○	○	○	○
나	○	○	○		○		
저				○	○	○	○
본인				○			

<표 23>은 신년사에 나타난 1인칭 대명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고빈도 10위 안에 1인칭 대명사가 포함된 경우를 표시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모든 시기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반면, ‘나’는 1970년대까지 자주 보이다가 이후에는 ‘저’로 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1980년대의 대명사 고빈도 어휘에 1인칭 단수형에 ‘본인’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60) 본인은 임기를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정의 임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비록 인기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이 비인기를 감수할 각오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4-6], 1986 전두환>

김현국(2001, 42)은 1인칭 단수형 ‘본인’은 화자를 지칭하는 한자어 계통의 1인칭 대명사로, ‘나’와 같이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으나, 한자어 특유의 권위적이며 위압감을 주는 어휘라고 설명한다. 80년대는 기나긴 군부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연 시기이다. 당시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대통령 보다 개혁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본인’이라는 어휘를 사용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위적이며, 위압감을 주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3) 동사

<표 24>는 동사의 고빈도 어휘를 나타낸 것이다. 동사의 고빈도어 1위는 ‘위하다’이다.

<표 24> 동사의 고빈도 어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동사	위하다	되다	하다	만들다	이루다	통하다	가지다	대하다	받다	드리다
개수	566	539	487	212	151	140	118	113	110	84

‘위하다’는 ① 이롭게 하거나 돕다 ② 어떤 목적을 이루다 ③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⁵¹⁾의 뜻으로 ‘위해’, ‘위한’, ‘위해서’, ‘위하는’, ‘위하여’로 활용된다. ‘위하다’

의 공기어⁵²⁾를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동사 ‘위하다’의 공기어 분포

공 기 어	기본형	활용형	횟 수
개선, 건설, 경제, 개발, 극복, 도약, 미래, 발전, 번영, 성공, 성취, 수립, 실현, 영광, 융성, 자립, 통일, 확대, 향상, 혁신	위하다	~을(를) 위한 ~을(를) 위하여	201
살리기, 발전하기, 수행하기, 나아가기, 진입하기, 이루기, 넓히기, 배양하기, 해결하기, 양성하기, 확대하기		~기 위해 ~기 위해서	365

‘위하다’의 활용형인 ‘~위한, ~위하여’의 경우에는 주로 [명사+목적격조사]의 형태와 결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명사는 ‘발전’이나 ‘성공’과 같은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어휘와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 위하여, ~기 위해서’의 경우에는 [동사+명사형접미사(-기)]의 형태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활용되는 동사 역시 ‘발전하다, 나아가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어휘와 결합된다. 동사 ‘위하다’의 공기어를 확인한 결과, ‘위하다’는 주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공기를 이루는데, 이는 명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 신년사의 주된 내용이 경제 발전과 관련 있음을 동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사의 다른 고빈도 어휘인 ‘되다’, ‘이루다’, ‘만들다’, ‘하다’ 등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형용사

형용사 고빈도어 1위는 ‘있다’이다. 신년사 전체 용언 중, 가장 높은 942회가 나타난다. 형용사 ‘있다’는 어떠한 것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단순히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형용사 ‘있다’가 신년사에서 하는 역할과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있다’가 공기하는 표현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그 역할과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형용사 ‘있다’의 공기어를 분석하여 보면 ~(으)ㄴ 수 있다가 25%인 222회로 나타난다.

5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2) 공기어 분석은 ‘21세기 세종 계획’의 언어정보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UinConc]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26> 형용사의 고빈도 어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형용사	있다	없다	크다	새롭다	많다	어렵다	같다	그렇다	높다	좋다
개수	942	424	204	192	164	118	99	79	78	73

김기혁(1999; 54)은 국어에서 ‘가능’의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으)ㄴ 것’, ‘(으)ㄴ 리’, ‘겠’과 ‘~(으)ㄴ 수 있다’⁵³⁾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으)ㄴ 것’, ‘(으)ㄴ 리’, ‘겠’은 시간상으로 미래, 양태⁵⁴⁾로는 추정과 의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이들은 가능성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보이기에 부족한 바가 있어 ‘~(으)ㄴ 수 있다’가 이를 보충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그 생산성이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으)ㄴ 수 있다’의 중심 의미는 가능과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61)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2], 2015 박근혜>

(61) ㉠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우위로 인해 수출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은 문화 플랫폼은 새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년사에 쓰인 ‘있다’의 의미는 ‘~(으)ㄴ 수 있다’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능력과 가능성의 범주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으)ㄴ 수 없다’의 경우에는 총 148회가 나타난다. 이는 형용사의 고빈도어 중 2위인 ‘없다’가 쓰이는 예이며, ‘~(으)ㄴ 수 있다’의 반의어에 해당된다. ‘없다’는 형용사 중 총 424회가 나타나는데, 이 중 ‘~(으)ㄴ 수 없다’로 쓰이는 예는 빈도

53) ‘(으)ㄴ’은 ‘미래, 추측 의지’의 의미를 가진 어미, ‘수’는 방법이나 도리의 의미를 가진 명사,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이다. 이들의 의미의 합은 ‘서술의 방법이나 도리가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이 구성은 의미 확장을 이루며 문법화 되어 ‘방법이나 도리’에서 ‘기능, 능력’의 의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김기혁 1999; 56).

54) 생각을 나타낼 때 생각의 견해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한 방법인 언어 범주로 형성된 것을 양태(modality)라고 한다(김기혁 1999; 51).

수의 35%에 해당된다.

(62) 우리는 이미 세계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라의 안과 밖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외교와 경제가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외교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9-2], 2010 이명박>

(62)는 ‘~(으)르 수 없다’가 쓰인 예인데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와 우리, 외교와 경제는 나누어지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으)르 수 없다’는 ‘~(으)르 수 있다’의 반의어이므로, 가능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 관형사, 부사

관형사와 부사의 경우에도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자는 의미의 ‘여러, 모든, 함께’와 같은 어휘들이 나타났으며, ‘더, 더욱’과 같이 정도를 강화시키는 수식어들이 자주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접속사의 경우에는 ‘그러나’와 ‘그리고’가 자주 나타난다.

<표 27> 관형사, 부사의 고빈도 어휘

순위	1	2	3	4	5	순위	1	2	3	4	5
관형사	이	여러	한	모든	그	부사	더	그러나	함께	그리고	더욱
개수	260	282	267	249	210	개수	192	184	168	143	123

신지연(2004: 60)은 논증 텍스트에서 ‘그러나’의 의미를 어휘적 의미의 ‘대조’와 ‘대립’이 아닌, 화자의 주장을 부각시키는 수사법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소적 기능을 하는 논증 텍스트의 경우에는 화자의 지향적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표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호소기능이 강한 논증 텍스트의 경우, ‘그러나’는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기 보다는 화자의 견해나 주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63) 이제 우리 국민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5대양 6대주 어느 곳도 자유로이 여행하며 온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번영과 인류의 공책을 위해 힘껏 일하는 약진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취적 기상을 키워 통일과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과 번영을 위한 모든 노력도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굳게 보장할 굳건한 안보역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1], 1989 노태우>

(64) '한국병' 중에서도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병입니다. 뭇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저도 과거 야당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저의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검은 돈, 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돈이나 조건이 붙은 돈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6-3], 1996 김영삼>

(63)의 화자는 우리 국민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의 주요 주장인 '안보 강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나'를 사용한다. (64)의 경우에도 후원자의 도움은 받았지만, 검은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신년사에 고빈도 접속사인 '그러나'의 경우에는 화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자주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2.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어휘 특징

4.4.절에서는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4.4.1.에서는 신년사의 고빈도 어휘를 분석, 각 품사 별 어휘의 특징과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각 시기별 어휘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시대별 어휘의 변화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변화와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휘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1950년대

1950년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이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지만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도, 국민의 의식도 폐허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표 28> 195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사람	61	우리	280	되다	45	없다	49	모든	57	다	61
2	동포	60	이것	18	가지다	37	있다	47	이	35	또	36
3	나라	50	나	14	하다	34	어렵다	15	그	25	같이	33
4	자유	38	이	13	있다	31	많다	14	한	27	지금	22
5	통일	31	여러분	7	싸우다	25	크다	9	새	15	서로	16

<표 28>은 1950년대 대통령 신년사의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로 5위⁵⁵⁾까지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전체 텍스트에서 명사의 고빈도 어휘 1위는 ‘국민’⁵⁶⁾인데 반해, 1950년대는 ‘사람’과 ‘동포’가 1,2위로 나타난다.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휘로 ‘국민’이 아닌, ‘사람’과 ‘동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빈도 명사 어휘에 ‘자유’와 ‘통일’이 출현한다. ‘통일’이란 단어는 1950년대에서만 고빈도어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고빈도 어휘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1950년대는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자 목표가 ‘통일’이었음을 고빈도 어휘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64) 우리들의 목적과 긴급한 것은 남북통일이며, 전쟁이 2년여에 이르러도 통일을 못했고, 또 하나 기가 막히는 일은 이북 동포가 칠백만인데 지금 삼백만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일을 우리가 단독 행위로 할 수 없으므로 이북 동포를 구하지 못하고 모든 우방들과 협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더 지낼 수 없다는 것이다. <[1-4], 1953 이승만>

(64)는 ‘통일’과 ‘동포’가 쓰인 예이다. 1950년대 명사 어휘 중 ‘사람, 동포, 나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자유’와 ‘통일’은 당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5) 표의 경우, 10위까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5위까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6~10위의 경우 그 출현 횟수가 급격히 줄어 1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시하여도 큰 의미가 없어 제외하기로 한다.

56)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동포: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50년대 동사와 형용사를 살펴보자. 신년사 전체 텍스트의 고빈도 동사인 ‘위하다’는 나타나지 않으며, 동사 1위에 ‘되다’와 5위에 ‘싸우다’가 나타난다. 역시 명사의 고빈도 어휘와 연결지어, 모든 동포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를 위해 싸우자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신년사 전체 텍스트의 고빈도 형용사인 ‘있다’ 보다 ‘없다’가 더 많이 나타나며, ‘어렵다’가 3위를 차지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많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새로이 무언가를 재건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있다’, ‘많다’의 긍정적인 어휘 보다 고빈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를 살펴보면, ‘모두, 다, 같이, 서로’와 같은 협동과 화합을 나타내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시의성을 드러내는 어휘가 자주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960년대

<표 29>는 1960년대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로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 명사의 고빈도 어휘 중 특징적인 것은 ‘경제’, ‘계획’, ‘건설’이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이 되고,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국가 재건이 시작된다.

<표 29> 196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국민	57	우리	113	하다	34	있다	47	모든	24	더	11
2	건설	29	나	18	위하다	22	하다	34	이	21	그리고	11
3	민족	23	여러분	17	되다	17	없다	25	한	18	그러나	11
4	경제	22	그것	10	살다	13	많다	17	여러	18	잘	10
5	계획	21	그	9	있다	10	되다	17	새	18	더욱	10

이를 증명하듯 1960년대 고빈도 명사 어휘로 ‘건설’이 나타나며, 이는 동사 고빈도 어휘인 ‘위하다’와 ‘살다’와 연결 되어, 대한민국의 살 길은 경제 건설 계획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사에서 ‘더, 더욱, 잘’과 같이 정도성을 강화시키는 어휘가 나타나 호소기능적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1970년

1970년대 고빈도 어휘의 특징은 명사 ‘유신’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표 30> 197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유신	51	우리	62	되다	13	있다	25	그	11	더욱	12
2	국민	21	나	13	하다	10	새롭다	6	여러	10	함께	8
3	경제	14	여러분	9	위하다	10	없다	4	한	9	보다	7
4	노력	10	이것	3	대하다	5	영광되다	3	이	9	그리고	7
5	개발	10	이	3	가지다	4	줄기차다	3	모든	6	또	4

명사의 고빈도어 1위는 1950년대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시대에 걸쳐 ‘국민’이 1위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청자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유신’은 체제를 의미한다. 1970년대만 유일하게 청자 보다 체제가 더 자주 거론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65) 우리 모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발휘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유신 과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합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유신 이념을 성실히 생활화하는 데 솔선수범합시다. 그리하여, 새해를 민족 웅비의 발판이 되는 보람찬 총화 유신의 한 해가 되게 합시다.
<[2-11], 1974 박정희>

(65)는 1974년 신년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국민 협조 요청’에 해당된다. 이 문단에서는 ‘유신’과 함께 ‘~합시다’의 청유형 종결어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호소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신’의 공기어를 살펴보면, 주로 ‘이념, 헌법, 체제, 과업, 질서’와 공기한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신년사의 화자인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화자의 주요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짐작케 한다.

1960년대의 고빈도 어휘로 출현했던 ‘경제, 건설, 계획’은 이제는 ‘노력’과 ‘개발’이란 단어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66)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재질이 비상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고,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예지가 자랑스러운 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아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8], 1971 박정희>

(67) 영산강 유역 4개 댐과 안동 다목적 댐 건설 등, 국토 개조의 근간이 되는 4대강 유역 개발의 대역사가 착착 준공되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14], 1977 박정희>

(68) 한편 국가 안보 면에서도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창설로 평화 수호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일취월장하는 우리의 방위 산업은 마침내 국산 장거리 유도탄 개발의 성공을 가져와 철통같은 자주 국방 태세 구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2-16], 1979 박정희>

(66)은 국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67)은 강 주변인 국토를 개발하며, (68)은 국산 무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는 건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는 개인의 능력과 기술,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동사의 특징으로는 ‘되다’가 고빈도 1위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사에서 ‘되다’가 고빈도어 1위로 출현하는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이다.

‘되다’의 기본의미는 ‘(어떤)기준에 맞음’을 의미하며, 변화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동식(1984: 419)⁵⁷⁾은 ‘되다’에는 ‘방향성’을 무표지 상태로 가진다고 주장한다. ‘되다’가 ‘시간’ 속의 흐름이 개재될 경우 ① 변화에 대한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운 ② 어떤 관계, 척도의 판단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69) 우리는 다행히도 지난 십 수 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보람이 있어 민족의

57) 김동식(1984: 411) ‘되다’의 의미

[기준에 맞음]+ [방향성]-----[+시간]변화판단

[-시간]----[+관계]관계판단

[+양,질]척도판단

[+시간][변화판단] 그 덕에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시간][+관계] [관계판단] 그가 나에게 손자뻘이 되더라.

[+양] [척도판단]그 여자 주위에서 찾아낸 남자만도 여덟이나 됐어요.

저력은 크게 배양되었으며, 이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2-19], 1972 박정희>

(70)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어 농촌 생활은 향상되고, 몰라보리만큼 크게 변모했으며, 그 결과 유례없는 대풍을 거두어 주곡 자급을 한 해 앞당겨 달성하게 되었습니다.<[2-13], 1976 박정희>

(69)는 십 수 년 동안 노력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신감을 찾았으며, (70)은 새마을 정신으로 일하여 주곡의 자급자족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69)와 (70)의 ‘되다’는 시간의 흐름이 포함된 변화판단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1970년대 동사 ‘되다’의 의미는 ‘변화에 대한 판단’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동사 ‘되다’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형용사 고빈도어인 ‘새롭다’와 ‘영광되다’와 함께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어휘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이러한 어휘가 자주 출현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증거이다.

4) 1980년대

1980년대의 품사별 고빈도 어휘는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명사의 고빈도 어휘에는 경제 발전과 관련 있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 ‘정부, 사회, 안정’이 고빈도 어휘로 출현하게 된다.

<표 31> 198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국민	160	우리	353	되다	90	있다	142	이	60	그리고	43
2	경제	81	여러분	61	위하다	83	없다	77	한	60	더욱	31
3	정부	77	이	60	하다	64	크다	30	여러	58	그러나	30
4	사회	61	본인	46	대하다	33	새롭다	26	그	47	매우	28
5	안정	53	그것	21	가지다	28	같다	23	모든	36	또	27

1980년대는 전직 대통령의 암살과 군사 쿠데타 등으로 출발하였고,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명사의 고빈도 어휘에 ‘정부, 사회, 안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명사 고빈도 어휘인 ‘본인’은 정부 주도 하에 사회적 안정의 추구하려는 공동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어휘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자어 특유의 권위와 위압감을 주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동사 고빈도 어휘의 특징으로는 ‘대하다’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도 ‘대하다’가 나타나지만 급격히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1980년대(이후 ‘대하다’는 동사 고빈도어에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동사 ‘대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년사에서는 ‘~에 대한’, ‘~에 대하여’, ‘~에 대해’, ‘~에 대해서’와 같이 활용하여 ‘어떠한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⁵⁸⁾는 뜻을 갖는다. 유의어로는 ‘관하다’가 있다.

(71)㉠ 모든 국민이 반사회적 범법에 대한 강력한 저지역할에 나서는 것은~

㉡ 반사회적인 일체의 동태에 대하여 강력한 훈계와 제동역할을 해야~

㉢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투철한 신념을 가지는~

㉣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중에도 공감을 가지는~

[1980년대 전두환 신년사 중]

(71)은 ‘대하다’가 활용하여 나타난 예이다. ‘대하다’는 연결어미 ‘~아서/어서’⁵⁹⁾와 결합하여 기능 상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순차, 계기, 선행, 전후 관계’(유해준 2016)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5) 1990년대

199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의 특징은 명사의 고빈도 어휘에 ‘세계’와 ‘개혁’이 나타나고, 동사 고빈도어에 ‘통하다’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5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9) ‘-아/어서’의 의미 기능을 문법서에서는 ㉠순서와 ㉡원인, 이유로 구분한다. 유해준(2016: 324)

<표 32> 199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국민	228	우리	372	위하다	133	있다	163	이	64	함께	41
2	경제	135	저	94	되다	119	없다	61	모든	56	이제	34
3	세계	113	여러분	70	하다	64	크다	53	한	49	바로	29
4	나라	77	이	64	이루다	61	새롭다	48	온	34	더욱	29
5	개혁	73	나	19	통하다	37	많다	24	여러	34	그러나	28

지난 시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1990년대가 되면 세계 일류국가의 꿈을 꾸게 되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산업의 구조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청산하려는 요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통령 신년사에 ‘개혁’이란 단어가 고빈도로 출현하게 되고, 공동체의 목표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이 된다.

(72) 첫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개혁의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과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화와 미래지향을 가로막는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6-1], 1994 김영삼>

(72)의 ㉠과 ㉢은 ‘세계’와 ‘개혁’이 나타난 예이다. ㉡은 동사 ‘통하다’의 활용의 예이다. ‘통하다’가 동사 고빈도 어휘로 출현하는 것은 1990년대와 2010년대이다. ‘통하다’는 ‘어떠한 과정이나 경험을 거치다’⁶⁰⁾는 의미로 세계로 나아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혁과 변화와 같은 과정을 거치야 함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나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하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2000년대

2000년대 고빈도 어휘의 특징은 명사에서 ‘정부’, ‘사회’, ‘정책’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도 고빈도 명사 어휘에 ‘정부’와 ‘사회’가 출현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에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혼란한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까닭에 ‘정부’와 ‘사회’가 잦은 출현을 보였다. 반면 2000년대가 되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역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실시가 요구 되게 된다.

<표 33> 200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국민	244	우리	231	하다	201	있다	305	여러	88	그러나	85
2	정부	233	저	96	되다	153	없다	145	이	80	더	66
3	경제	218	이	66	위하다	150	크다	62	그	65	그리고	62
4	사회	150	여러분	39	만들다	82	많다	51	한	52	함께	41
5	정책	126	무엇	22	드리다	47	어렵다	50	모든	37	많이	40

<표 33>을 보면 2000년대 명사 고빈도 어휘에 ‘정부’가 2위를 차지하며, ‘사회’와 ‘정책’은 4, 5위에 나타난다.

(73)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석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고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8-4], 2007 노무현>

(73)은 ‘정책’이 쓰인 예로, 총 4개의 문장에 4번의 ‘정책’이 쓰인다. 한 문장에 한 번씩 나타난 것이다. 2000년대가 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에서 분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73) ㉠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정책

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신년사의 명사 고빈도 어휘에 ‘정부’, ‘사회’, ‘정책’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7) 2010년대

<표 34>는 2010년대 대통령 신년사의 품사별 고빈도 어휘를 제시한 것이다. 명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기에서도 고빈도를 보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명사의 ‘일자리’라는 단어는 2010년대가 되면 급격히 늘어난다.

<표 34> 2010년대 품사별 고빈도 어휘

순 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1	국민	243	우리	243	위하다	148	있다	213	여러	62	더	55
2	경제	168	저	45	되다	102	없다	63	한	52	함께	48
3	정부	113	이	35	하다	80	새롭다	59	모든	33	더욱	28
4	세계	112	여러분	34	만들다	73	크다	43	그	32	지금	27
5	일자리	83	그것	10	통하다	46	많다	40	이런	25	다시	24

(74)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3], 2016 박근혜>

(74)는 ‘일자리’라는 단어가 쓰인 예이다. 이를 통해 신년사 텍스트 생산 당시 공동체의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불황과 저성장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년사의 화자인 대통령은 이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4.5. 요약

이 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전개와 기능, 어휘 양상을 분석, 확인하였다. 첫째, 시기별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과 연속성을 이해하였다. 대통령 신년사 전개의 특징으로는 우선 ‘도입 부분’은 서사 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전개 부분’의 논증 구조를, ‘마무리 부분’은 제안화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년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는 신년사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로, 긴 문장과 짧은 텍스트가 특징이며, 1960년대는 그 형식이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지만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과 정책의 제시 보다는, 청자를 교화하기 위한 훈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신년사에서 더 강화된다. 반면 구조적, 형식적인 면에서 1970년대 신년사는 일정한 틀을 갖추기 시작한다. 또한 정책이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는 특징을 보인다. 1980년대 신년사는 전개 부분의 정책이 보다 세밀화 되는데,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신년사는 일정한 구조와 형식을 갖추게 된다. 1990년대 신년사의 특징은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이 ‘통일·안보·국방, 사회, 정치, 외교, 문화’의 6개 분야로 나뉘어 진술되고, 마무리 부분에서 ‘대통령 소임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0년대부터는 신년사의 문장이 짧아지는 구어적 특징을 보이고, 전체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기별 텍스트의 기능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기능은 ‘브링커(1985)’의 텍스트 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였다.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부분의 주요 내용은 정책의 제시에 있으므로 주 텍스트기능은 제보기능이 실현되었으며,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제보기능의 순서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기능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는 접촉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제보기능을 실현한다. 1960년대부터는 전개 부분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보 기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었으며, 1970년대는 정치적인 이유로 내용면에서 왜곡현상이 발생, 호소기능을 중심으로 접촉기능이 실현된다. 1980년대는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을 중심이 되며,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된다. 1990년대부터는 국정 운영 과제와 정책의 세분화, 다양화로 인해 주요 기능으로 제보기능이 실현되며, 호소기능과 함께 책무기능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끝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는 이전 시기의 신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접촉기능의 축소와 함께 제보기능이 더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어휘와 문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신년사 전체 텍스트의 고빈도어 100개를 제시,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분류하였더니 체언이 53%, 용언이 26%, 수식언이 21%로 나타났다. 특히 고빈도 상위 10개의 어휘 중 체언은 ‘우리> 국민> 경제> 정부> 사회’의 순서로, 용언은 ‘있다> 위하다> 되다> 하다>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사별 고빈도 어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명사에서는 화자를 지칭하는 ‘국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화자와 청자의 결속관계를 중시, 공동체 의식과 관련 있는 ‘정부, 나라, 국가, 사회’가 고빈도로 출현하였다. 대명사는 ‘우리’가 고빈도어로 나타나는 데 이는 화, 청자간의 공감력을 증대,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었다. 동사의 고빈도 어휘는 ‘위하다’이며, 공기어 확인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휘와 결합하여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있다’와 ‘없다’가 고빈도 어휘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가능성과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수식언의 경우에는 ‘여러, 함께, 모든’과 같이 협동의 의미를 수식하는 단어와 ‘더, 더욱’과 같이 정도성을 강화하는 어휘가 자주 출현함을 확인하였다.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는 청자를 ‘동포’라고 지칭하였으며, ‘통일’과 ‘자유’라는 명사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있다, 많다’와 같은 긍정적 어휘 보다 ‘없다’와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1960년대는 ‘경제, 건설, 계획’이라는 명사가 고빈도로 출현, 국가 재건의 목표가 경제 건설을 통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특징은 명사 고빈도 어휘에 ‘유신’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른 시기의 명사 고빈도 어휘는 청자를 지칭하는 ‘국민’이라는 단어인데 반해, 1970년대만 유일하게 체제를 가리키는 명사가 고빈도 어휘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텍스트 생산자의 정치 이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증거이다. 1980년대는 ‘정부, 사회, 안정’이 고빈도 명사 어휘로 등장, 정치적 이유로 혼란했던 사회의 안정 욕구가 어휘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는 ‘세계, 개혁’과 같은 명사 어휘가 특징적인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목표인 세계 일류 국가의 도약을 위해 개혁이 필요했음을 짐작케 하였다. 끝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책’과 ‘일자리’라는 명사가 고빈도로 출현, 당시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 화두는 국가의 정책과 일자리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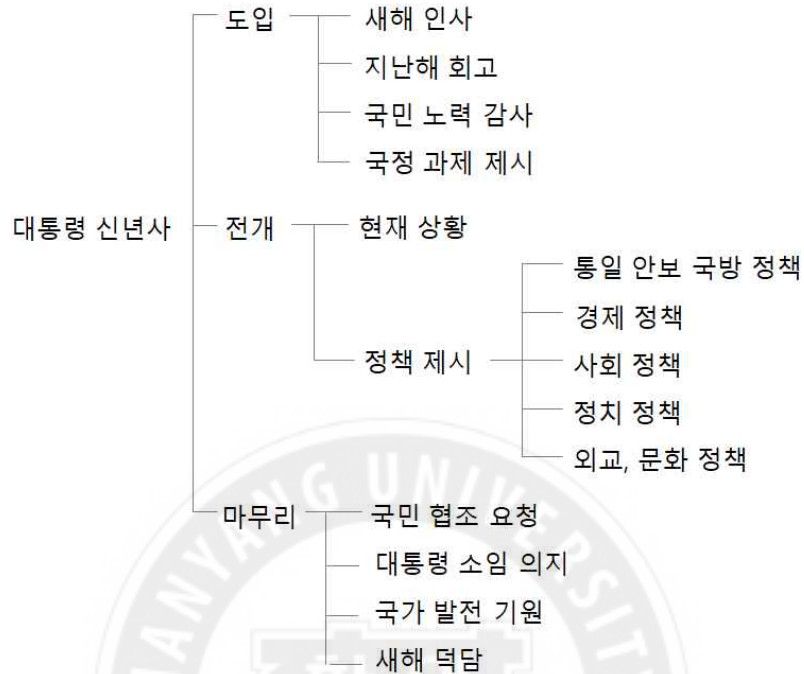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전개와 구조를 분석하고, 텍스트의 기능 및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삼았다. 텍스트언어학의 주된 연구 과제는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신년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통령 신년사는 연설문의 하위 유형으로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화자가 되어 국민인 청자에게 발화하는 텍스트로, 매 년, 연 초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원고 연설 텍스트이자 공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담화 텍스트로 +공적, +설득적, +독화적, +친교적, +논증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문법적 연결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의미적 연결 관계인 개념들을 파악, 이를 확장시켜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식 구성체는 하나의 망(network)으로 연결 되고 통일성 있는 개념인 ‘주제’를 형성한다. 텍스트는 바로 개념의 망인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성을 밝히는 것은 문법적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개념의 망인 주제를 살피는 일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n Dijk(1980)의 거시구조 규칙을 적용하여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와 구조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의 거시구조와 각 명제 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층위별로 일정한 기능을 갖는 부분텍스트의 묶음을 ‘문장→문단→문단군’으로 보고 각각 $S_n \rightarrow P_n \rightarrow C_n$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는 ‘도입, 전개, 마무리’ 3단 구성으로 분석되었고, ‘도입’은 ① 새해 인사 ② 지난해 회고 ③ 국민 노력 감사 ④ 국정과제 제시의 순서로 명제 내용이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개’는 ① 현재 상황과 함께 6가지 국정 운영 과제인 ② 통일·안보·국방 ③ 경제 ④ 사회 ⑤ 정치 ⑥ 외교, 문화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었으며, ‘마무리’는 ① 국민 협조 요청 ② 대통령 소임 의지 ③ 국가 발전 기원 ④ 새해 덕담의 순서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공통된 형태를 구조화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4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첫째, 텍스트의 전개, 둘째, 텍스트의 기능, 셋째, 텍스트의 어휘 양상을 확인하였다. 첫째, 시기별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전개 양상을 통해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과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통령 신년사의 각 층위별 명제 구조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도입 → 서사 : ㉠ 과거 - 지난해 회고, 국민 노력 감사, 자기반성,
㉡ 미래 - 국정과제 제시, 각오와 다짐
- (2) 전개 → 논증 : 통일·안보·국방, 경제, 사회, 정치, 외교·문화 정책
- (3) 마무리 → 제안 : ㉠ 청자에게 요구 - 국민 협조 요청, 지지 호소
㉡ 화자의 의지 - 대통령 소임 의지
㉢ 화자+청자 희원 - 국가 발전 기원, 국민 잠재력 강조

시기별 전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는 신년사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로, 긴 문장과 짧은 텍스트가 특징이며, 1960년대는 그 형식이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지만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과 정책의 제시 보다는, 청자를 교

화하기 위한 훈시의 형태를 띠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신년사에서 더 강화되었다. 반면 구조적, 형식적인 면에서 1970년대 신년사는 일정한 틀을 갖추기 시작하며, 정책이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신년사는 전개 부분의 정책이 보다 세밀화 되는데,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신년사는 일정한 구조와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전개 부분의 명제 내용이 ‘통일·안보·국방, 사회, 정치, 외교, 문화’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진술되고, 마무리 부분에서 ‘대통령 소임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부터는 신년사의 문장이 짧아지는 구어적 특징을 보이고, 전체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기별 텍스트의 기능 양상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의 기능은 ‘브링커(1985)’의 텍스트 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대통령 신년사의 도입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제보기능> 호소기능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부분의 주요 내용은 정책의 제시에 있으므로 주 텍스트기능은 제보기능이 실현되었으며, 마무리 부분의 텍스트 기능은 접촉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제보기능의 순서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 기능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우선 1950년대는 접촉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제보기능을 실현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전개 부분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보기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었으며, 1970년대는 정치적인 이유로 내용면에서 왜곡현상이 발생, 호소기능을 중심으로 접촉기능이 실현되었다. 1980년대는 접촉기능과 제보기능을 중심이 되며, 호소기능이 부차적으로 실현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국정 운영 과제와 정책의 세분화, 다양화로 인해 주요 기능으로 제보기능이 실현되며, 호소기능과 함께 책무기능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끝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는 이전 시기의 신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접촉기능의 축소와 함께 제보기능이 더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통령 신년사 텍스트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신년사 전체 텍스트의 고빈도어 100개를 제시,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분류하였더니 체언이 53%, 용언이 26%, 수식언이 21%로 나타났다. 특히 고빈도 상위 10개의 어휘 중 체언은 ‘우리> 국민> 경제> 정부> 사회’의 순서로, 용언은 ‘있다> 위하다> 되다> 하다>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사별 고빈도 어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명사에서는 화자를 지칭하는 ‘국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화자와 청자의 결속관계를 중시, 공동체 의식과 관련 있는 ‘정부, 나라, 국가, 사회’가 고빈도로 출현하였다. 대명사는 ‘우리’가 고빈도어로 나타는데 이는 화, 청자 간의

공감력을 증대,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었다. 동사의 고빈도 어휘는 ‘위하다’이며, 공기어 확인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휘와 결합하여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있다’와 ‘없다’가 고빈도 어휘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가능성과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수식언의 경우에는 ‘여러, 함께, 모든’과 같이 협동의 의미를 수식하는 단어와 ‘더, 더욱’과 같이 정도성을 강화하는 어휘가 자주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년사 텍스트의 시기별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는 청자를 ‘동포’라고 지칭하였으며, ‘통일’과 ‘자유’라는 명사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있다, 많다’와 같은 긍정적 어휘 보다 ‘없다’와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1960년대는 ‘경제, 건설, 계획’이라는 명사가 고빈도로 출현, 국가 재건의 목표가 경제 건설을 통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특징은 명사 고빈도 어휘에 ‘유신’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른 시기의 명사 고빈도 어휘는 청자를 지칭하는 ‘국민’이라는 단어인데 1970년대만 유일하게 체제를 가리키는 명사가 고빈도 어휘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텍스트 생산자의 정치 이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는 ‘정부, 사회, 안정’이 고빈도 명사 어휘로 등장, 정치적 이유로 혼란했던 사회의 안정 욕구가 어휘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는 ‘세계, 개혁’과 같은 명사 어휘가 특징적인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목표인 세계 일류 국가의 도약을 위해 개혁이 필요했음을 짐작케 하였다. 끝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책’과 ‘일자리’라는 명사가 고빈도로 출현, 당시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 화두는 국가의 정책과 일자리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전개와 구조, 텍스트의 기능 및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대통령 신년사의 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향후 보완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텍스트의 거시적인 구조 분석 및 목적과 의도 위주의 분석으로 인하여 응집성의 실현과 문법적 응결 장치 등의 미시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 신년사의 기능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의 목적과 의도는 확인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텍스트 생산자는 어떠한 언어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향후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통령 신년사의 어휘 사용 양상을 통해 텍스트 생산 당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을 분석하는 일 못지않게 문장의 유형과 서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은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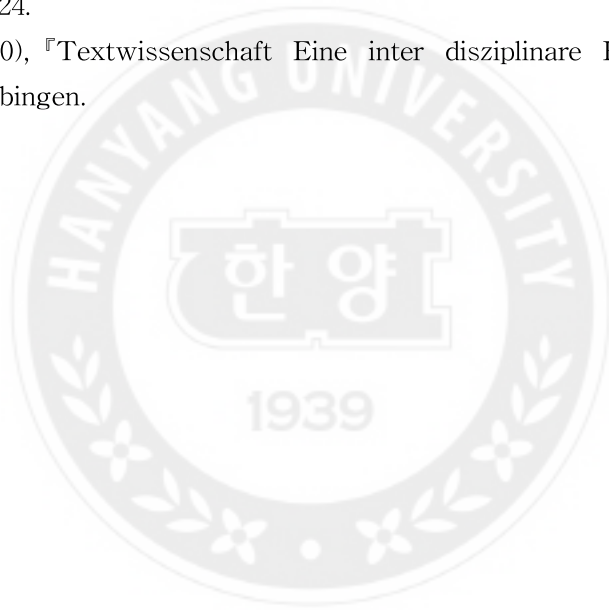
1. 강국진(2017), 「대통령 연설문을 통해 본 조세 담론의 변동과 갈등 양상」, 한국미래행정학회.
2. 강태완 외(2004),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 규정」, 사회과학연구.
3.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22.
4. 고영근(2011), 『텍스트 과학』, 집문당, 208.
5. 곽송영(2018), 「1980년대 이후 한국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담론 변화 연구」, OUGHTOPIA.
6. 김기혁(1999), 「‘가능’ 범주의 형성과 확장」, 어원연구, 54, 56.
7.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411~419.
8. 김명기(2002),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취임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김범수 외(2006), 「연설텍스트의 수사적 체계 분석」, 수사학.
10. 김병홍(2017), 「대통령 취임사의 언어 특성 분석」, 우리말연구.
11. 김봉균(1993), 『문장기술론(제3판)』, 삼영사.
12. 김선경(2014), 「중국 국제 정치 연설문의 텍스트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 김소희(2011), 「미국 드라마 ‘Friends’에 나타난 화행 분석-Searle(1976)의 화행분류를 근거로」,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34.
14. 김영진 역(1992), 『말과 행위-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5. 김은정(2005), 「대통령 연설에 나타난 대통령의 수사적 역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김종영(2000),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응용: 히틀러의 1937년 10월4일 연설문 분석」, 텍스트언어학.
17. 김태옥 외, 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24.
18. 김혁(2014), 「대통령 리더십과 정책의제 설정 양태에 대한 연구: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연설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 김현국(2001), 「연설문의 문체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서울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박덕유(2003), 『화법·작문 교육론』, 서울 역락, 166.
21. 박지민(2016), 「텍스트종류 ‘신년사’의 한·독 대조 분석: 박근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박찬욱(2009), 「중국국가지도자 신년사의 행위구조와 ‘我們’: 江澤民의 1997년, 1999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66.
23. 백미숙(2002),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독어학.
24. 성미경(2003),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의 수사학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5. 송명(1996), 『청중시대 연설문 작성법』, 신세대, 112.
26.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195-197.
27. 신지연(2004), 「논증 텍스트에서의 ‘그러나’의 주제 전개 기능」, 텍스트언어학, 60.
28. 양태종(1993), 「들머리 만들기」, 독일학연구.
29. 양태종(1997), 「마무리에 대하여」, 독일학연구.
30. 양태종 역(2002),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31. 양태종(2004),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텍스트의 종류」, 텍스트언어학, 9.
32. 유동엽(2007),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유해준(2016),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 - 고와 - 아/어서의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324.
34. 이귀혜(2007),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 수사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5. 이상만 역(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텍스트 분석의 기본 개념과 방법』, 한국문화사.
36. 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적 텍스트분석의 기본 개념과 방법』, 도서출판역락.
37. 이성만(2006), 『텍스트의 구조와 이해』, 배재대학교출판부.
38. 이석규 외(2001),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16-17, 206.
39. 이승연 외(2014), 「한국어 이메일에 나타난 공손 전략 연구」, 언어정보, 116.
40. 이원표(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문화사, 24.
41. 이은경(2003), 「공지문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회, 236.
42. 이재원(2013),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독어학.
43. 이정복(2003), 「대통령 연설문 경어법 분석」, 배달말.
44. 이정복(2007), 「대통령에 대한 언어적 특별 대우: 대통령 전용말」, 한민족언어문

학.

45. 이주행(2006), 『한국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서울 동인, 161.
46. 이창길(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168.
47. 임성우(2016), 「정치 연설문에 나타나는 대립의 응집관계와 텍스트 결속」, 사회과학연구.
48. 임주영·박형준(2015), 「직무특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 가치 변화 분석: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 임학순(2012),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인식 연구: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50. 장경수(2010), 「대통령 연설 담론의 수사학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1. 정시호(1995), 『텍스트학』, 민음사,
52. 정윤희(2019), 「역대 대통령 신년사에 나타난 언어표현 전략 고찰」, 우리말연구.
53. 조규보 외(2013),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체육 관련 연설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54. 주희민(2013), 「한중 연설문 텍스트의 문법적 응결 장치 대조 연구」, 한국어학.
55. 주혜영(2015), 「트위터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56.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62, 63.
57. 텍스트언어학회(2009),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168, 148~160.
58. 황창호 외(2015),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0.
59. 홍명중(2017), 「연설문 텍스트 갈래의 초등 교육 내용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60.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61. Beaugrande & Dressler(1980), 『Text, Discourse and Process, New Jersey』, Ablex London Longman.
62. Brinker, k.(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rich Schmidt Verlag.
63. Bühler, K.(1935), 『Sprachtheorie. Darstellungsfunktionen der Sprache』, Frankfurt.
64. Große, E, U.(1976), 『Text und Kommumik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 Funktionen der Texte』, Stuttgart.
65. Gülich, E. & W, Raible.(1975), 『Textsorten-Probleme. In: Linguistische Probleme der Textanalyse』, Jahrbuch des IDS, Düsseldorf.
66. G.Yule(2001), 『화용론』, 박이정, 57-60.
67. H. F. Plett(2001),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lyse』, Helmut Buske Verlag, Hamburg.
68. Sakuragi, Ikki(2006), 「대통령 정치 연설문의 텍스트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9. Searle, J.R.(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 Language in Society, 5, 1-24.
70. Van Dijk(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linäre Einführung』, dtv, Niemeyer, Tübingen.



ABSTRACT

A Textlinguistic Study on the New Year's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Soon-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 structure of New Year's speech of Korea's President and to study the text function and vocabulary usages. The main research task of the text linguistics is to identify and systematically describe the textuality of the tex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has been done to clarify the textuality of the President's New Year's speech. First, the linguistic methodology of the text analysis is examined before a full-on analysis. Second, the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New Year's speech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tudied. Thir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Year's speech, the features of the text functions, and the use of vocabulary are examined. These contents are developed into the main research tasks of each chapter, and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In Chapter 2,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me is identified to clarify the textuality of the President's speech.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New Year's speech by applying Van Dijk's(1980) macrostructural rules. This types of study helps to reveal the identity of New Year's text.

In Chapter 3, a group of partial texts with certain functions are categorized into 'sentences', 'paragraphs', and 'paragraph groups' and then are analyzed to examine the macrostructure of the New Year's Speech. Through this, the speech is confirmed to consist of the three stages including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onclusion'. Introduction includes ① New Year's greetings, ② last year's review, ③ appreciation for citizens' efforts, and ④ presentation of national tasks. The

development includes ① current status, ② unification,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③ economy, ④ society, ⑤ politics, and ⑥ diplomacy and culture. Conclusion includes ① request for national cooperation, ② willingness to take up the Presidential duties, ③ wishes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④ New Year's remarks. Based on these studies, the common structure of New Year's Speech of the President of Korea is established.

In Chapter 4, New Year's speech is classified by time to identify the structure, the function, and the vocabulary of the text. While through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text', the structural features and continuity of the text of the speech is understood,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text' allows to understand the communication objectives and intentions can be confirmed. The text function of 'Introduction' shows the weightings in the order of contact function, reporting function, and appeal function. As the main content of the 'development' part is in the presentation of policy, the main text function is the reporting function, while the text function of 'Conclusion' is realized in the order of contact function, appeal function, accountability function, and reporting function. Lastly, to examine New Year's speech, the lexical analysis of the vocabulary and the 100 high-frequency vocabulary are presen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 of speech. Among the top 10 high-frequency vocabularies, substantives appear in the order of 'Uri', 'Gookmin', 'Gyeongje', 'Jeongbu', and 'Saheo', while predicates show up in the order of 'Itda', 'Wuihada', 'Doeda', 'Hada', and 'Upda'. The verb with the high frequency is 'Wuihada', and it is confirmed that it is described in combination with positive and developmental vocabulary according to co-occurring words. In the case of adjectives, 'Itda' and 'Upda' appear as high-frequency vocabulary, which are considered to be used to mean possibilities and abilities. Finally, in the case of modifiers, the words that modify the meaning of cooperation such as 'Yeoreo', 'Hamggye', and 'Modeun' and the words that enhance the degree of precision such as 'Deo' and 'Deoukk' frequently appear.

Chapter 5 is the conclusion and summarizes the items covered in this study. It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tudy by stating its limitations and parts requiring reinforcement.

Keywords : New Year's Speech of the President, Concept of New Year's Speech, Development of New Year's Speech, Structure of New Year's Speech, Structure by Time, Macrostructure, Text Function, Function of New Year's Speech by Time, Vocabulary Aspects



연구 윤리 서약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셋째, 논문 작성시 논문유사도 검증시스템 "카피킬러"등을 거쳐야 한다.

2019년11월23일

학위명 : 석사

학과 :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신중진

성명 : 김순옥

 (서명)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장 귀 하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 as a graduate student of Hanyang University, hereby declare that I have abided by the following Code of Research Ethics while writing this dissertation thesis, during my degree program.

"First, I have strived to be honest in my conduct, to produce valid and reliable research conforming with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and I affirm that my thesis contains honest,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Second, I have not committed any acts that may discredit or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falsification,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or plagiarism.

Third, I need to go through with Copykiller Program(Internet-based Plagiarism-prevention service) before submitting a thesis."

NOVEMBER 23, 2019

Degree : Master

Department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sis Supervisor : Shin Jung-Jin

Name : KIM SOONOK



(Signature)